

안보와 화합, 통일과 성장 힘쓰는 대통령 되길

교계 지도자들, 박근혜 당선자에게 당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은 확정된 가운데,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은 새 대통령을 향해 국가안보와 국민화합, 평화통일 및 경제성장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당신을 축하한다”며 “국민의 안위가 가장 중요한 만큼 국가 안보를 확실히 지켜 주고, 통일에 대한 실현가능하고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며, 위대한 민주국가 건설과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며,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청렴결백한 양심적인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 대표회장은 특히 “특히 한국 기독교계가 2014년 세계 기독교 최대 축제인 WEA(세계복음연맹) 총회를 개최하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며 “인수위 구성 단계부터 임기 수행 기간까지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무사하게 국정을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홍 대표회장은 선거 막판 불거졌던 박근혜 후보에 대한 ‘신천지 연루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기총은 선거직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임을 지적한 바 있다. 홍 대표회장은 “이미 한기총이 엄정중립을 선언한 상황에서 어려운 결단이었지만, 한기총은 6개월 전 이와 같은 정보를 받고 사실 관계를 여러 경로로 확인조사한 결과 박근혜 후보는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확인했고, 교리적인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도 끝에 결단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축하한다”며 “모든 국민들을 포용해서 공약을 잘 지켜나가길 바란다. 무엇보다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국민일보에 기고

한 글을 통해 “국방을 튼튼히 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지켜 달라. 소외된 자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고 애국 애족의 분명한 철학으로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잘 지키시기 바란다”고 했다.

권 대표회장은 “편견 없이 보수, 진보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품어 주기 바란다. 생명을 경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들에게는 사랑의 동기에서 과감히 권위를 행사하시기 바란다”며 “전군신자화운동 등 민족정신문화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한다. 문화, 사상, 경제, 복지에서 균형을 이루고 남북통일의 초석을 놓는 대통령이 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 김요셉 대표회장도 국민일보 기고글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지도자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선거 과정에서 밝힌 기독교 관련 정책공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서로 지지하는 후보를 놓고 또다시 양분됐다.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우리 사회를 통합하는 일이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정치 노선이 다르더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큰 정치를 펴는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청교도영성훈련원장이자 기독교지운운동을 펼쳐왔던 전광훈 목사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며 “나라가 중북화되고 헌법이 무너지는 상태에서도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기도했는가를 알려준다”고 강조했다.

미래목회포럼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는 “대통령 당선자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들을 해결하고 국민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통합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류재광 기자



박근혜 후보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남가주장로협 38대 회장에 홍순헌 장로 연임

15개 단체 및 개인에게 사랑나눔 선교기금 전달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가 제 38차 정기총회 및 사랑나눔선교기금 전달식을 16일 오후 5시 남가주한소망교회(지역한 목사)에서 개최했고, 회장에 홍순헌 장로가 연임됐다. 38대 회장으로 공천을 받은 홍 장로는 이날 만장일치로 유임됐다.

홍 장로는 “올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에 한인회관 건물에 협의회 사무실을 계약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 이를 유지하면서

한인사회 및 교계와 잘 협력할 것”이라며 “산하 조직과 분과위원의 90% 이상을 개편하려 한다. 많은 협력과 지도,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예배 후 곧 이어 진행된 사랑의 나



홍순헌 회장

눔 전달식에서는 15개의 단체 및 개인에게 선교비, 이웃돕기, 신학생 선교비 등의 명목으로 기금이 전달됐다.

1부 예배는 사회 박남수 장로, 기도하기엔 장로, 설교 지영환 목사, 헌금 기도 박광원 장로, 축도 지영환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장로협의 이취임예배는 내년 1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토마스 맹 기자

얼어붙은 경기, 추워진 날씨... 사랑은 더 뜨거워

남가주헬로쉽교회(박혜성 목사)가 연말을 맞아 커뮤니티 봉사 차원에서 지역주민 150여 명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다.

남가주헬로쉽교회는 지난 16일 인근 홈리스와 주민들을 교회로 초청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선물을 나누고 성탄축하예배와 공연으로 복음을 전했다. 작년에 비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EM이 중심이 돼 식당 봉사를 비롯한 행사 전반이 준비된 점이다.

이 교회는 홈리스 사역팀을 따로 조직해 18번째 매주일 아침 7시 30분, 인근 1백여 명의 홈리스들을 위해 따끈

한 치킨스프와 샌드위치, 도너츠, 과일, 커피 등을 제공하며 복음을 전해 오고 있다. 5년 전에는 홈리스를 위한 수련회를 열고 침례식도 거행하는 등 홈리스 사역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 교계에 모범이 되고 있다. 이어진 축하공연에서는 교회 온 성도가 함께 준비한 수준 높은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참석한 이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행사 후에는 추운 겨울을 날 수 있게 점퍼와 담요를 배부했다.

방주교회(김영규 목사)도 13일 정오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무료점심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타운 내

3백여 명의 노인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는 행사 뒤, 참석자 전원에게 카스테라 빵이 전달됐다. 연말을 맞이해 특별한 마련인 이날 행사에는 방주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미은행 직원들이 봉사자로 나섰고, 자바시장 한인업체 ‘패션고(이호 사장)’가 카스테라 300개를 후원했다. 김영규 목사는 “오랜 경기 침체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는 업체에 감사드린다”면서 “한인 노인분들에게 작으나마 빵을 선물해 드릴 수 있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정한나 기자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TAX 문제 전문 TAX HELP TEAM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CLIENTS	RECENT CASES	RESULTS
K.Y.HWANG	IRS \$63,403.00	\$6,331.41 (\$100/mo)
C.P.RESTAURANT	BOE \$69,300.00	\$8,456.80 (\$500/mo)
N.D. INC.	EDD \$23,983.25	\$0
M. YIM	IRS \$137,22.49	\$200/month
K.Y.KWON	IRS \$44,471.46	\$0
T. HAN	IRS \$735,661.94	\$15,566.00

3250 Wilshire Bl. Ste 900, L.A. CA 90010 Tel. 213-248-0221
 1201 S. Beach Bl. Ste 106, La Habra, CA 90631 Tel. 562-943-1456

Merry Christmas 성탄을 축하합니다.

코헨신학대학교

코헨신학대학교는 세계선교를 위해 설립된 신학교입니다. 특히 제3세계와 현지인들에게 신학교육을하며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을 훈련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리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수십년동안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이 사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교단과 세계교회와 동문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 법인이사장** Dr. Merilline Cohen, D.D.
- 법인총장** Dr. Ronald Vandermey, Th.D., D.R.E.
- 부총장** Dr. Carol Spanier, Ph.D.
- 국제총장** Dr. Gary G Cohen, Th.D., Litt.D.
- 대학원장** Dr. William Stinde, Ph.D.
- 박사원장** Dr. Vance Vandermey, Th.D.
- 행정학감** Dr. Sarah Kim, Th.D., Ph.D.

17002 S. Prairie Ave., Suite 2000, Torrance, CA 90504
 (T)1-424-257-8171, (F) 1-424-257-8136 E-Mail : cohenuniversity@hotmail.com

“힘들다고 포기 안 해, 고난 속에서 소망 꿈꾼다”

동양선교교회, 내홍 딛고 부흥 전환, 새 도약 준비

“

주목받던 1.5세 목회자

그가 OMC로 온 이유?

죽어가는 2세 살리기 위해

1세 목회 회복이 선결 과제

효과적인 EM 사역

교단 교파 초월해

뭉치는 게 사는 길

”

“아프다고 자리 깔고 누워있을 수만은 없죠. 아프면 아픈대로 약 먹으면서 할 일을 해야죠.”

올해로 42주년을 맞이한 동양선교교회(OMC)의 담임 박형은 목사의 말이다. 지난 12일 만난 그의 인상은 마치 거친 파도에 모란 돌이 깔여 동글동글해지듯 교회 갈등을 겪으며 동그랗게 깎인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부적인 어려움과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되레 고난 가운데 소망을 꽃피우실 하나님만을 바라보셨노라 다짐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LA 한 인사회를 대표하는 대형교회로 손꼽히던 교회였는데...' 하는 안타까움을 인터뷰 내내 떨칠 수 없는 건 어찌서일까. 2005년 이래 심각한 내홍을 겪으면서 당시 시무하던 목사는 결국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 물론 교회의 대외 이미지는 곤두박질쳤다. 언론에 비친 일부 기독교인의 무분별한 횡포는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교회가 지난해 7월 5대 담임으로 박형은 목사가 부임한 것. 그로부터 딱 1년 반이 지났다. 이 시점에서 그는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그의 약력부터 소개하자면, 그는 초등학교 시절 아르헨티나 이민을 거쳐 1979년 북가주에 건너온 1.5세 목회자다. 나성영락교회 EM(영어 목회)을 12년간 담당하다 2007년 텍사스 빛나리교회에서 4년간 1세 목회를 한 경험이 있다. 한국어는 물론 영어와 스페인어, 포르투갈어까지 4개 국어에 능통한 '차세대 목회자'로 인정 받고 있다.

그가 문제 많은 동양선교교회에 부임할 당시 혹자는 이렇게 말했다. 2세 목회자는 멧집이 약하니 조금만 힘들게 하면 금방 (교회를) 떠날 거라고. 길어봤자 3년, 아니 1년도 채 못 버틸거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예상은 오히려 빗나갔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제가 만약 떠난다면, 힘들어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기

때문일 거예요. 어느 교회라고 안 힘들겠어요. 앞으로 모든 게 정리되면, 교회 분쟁 관련 세미나를 한 번 할려고 해요.(웃음)”

박 목사 부임 후 처음 1년간은 외부적으로 조용한 듯 보였다. 그러다 지난 7월부터 잡음이 들리더니 사실 경호원이 교인들의 교회 출입을 간섭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를 반복했다.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사람들은 “힘든 교회에 애당초 왜 왔냐”고 묻기도 한다고. 그러면 그는 “힘든 교회니까 왔다”고 역설적인 대답을 내놓는다. 10여년간 2세 목회에 올인(all-in)해오던 그가 돌연 1세 목회로 전향한 건, 2세 목회가 싫어서가 아니다. 한 세대의 약이 다음 세대의 영성을 죽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는 “부모 세대의 영성을 보면서 2세대들이 자기 갈 길을 결정하는데, 자녀들 눈에 부모가 위선자나 이중인격자로 보이는 가정이 많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사사기 2장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씀처럼 가망이 없다고 본다”면서 “2세대를 위해서라도 1세대들이 제대로 신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에 따르면, 워낙 안 좋은 뉴스거리로 유명세(?)를 타서 그런지 2세대도 OMC 하면 ‘힘든 교회’라는 걸 다 안다고. 오죽하면 ‘그 교회는 절대 안 바뀔거다’라고 장담하는 2세대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OMC에 온 이유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믿는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물론 1세 목회가 쉽지않은 건 아니지만 ‘다음 세대가 달린 문제이니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라는 것.

“두고 보세요. 사람이 보기엔 절대 안 바뀌어도 하나님께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질 때까지 결단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박 목사와의 일문일답.



박형은 목사

-오랜 분열과 갈등을 겪어왔는데, 그나마 어느 정도 많이 극복이 된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도 가장(家長)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가정의 태도와 기분에 따라 온 가족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듯이 목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힘들어하면 양들도 힘들어하거든요. 목사가 느긋하고 여유만만하면 교인들도 힘 받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더 웃으려고 하고 표정관리도 하고 그러죠. 물론 기도할 때는 눈물 뿌리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서로 대할 때는 되돌아보면 재미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많이 웃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 우리 교인들한테도 얘기해요. 좋맞은 사람처럼 얼굴 찡그리고 다니지 말고 웃고 다니라고요. 웃을 일이 별로 없었던 게 사실이죠.

근데 지나고 보니 유치하기도 하고, 다 큰 어른들이 무슨 생각으로 아이들 장난 마냥 ‘우리 끼’라고 문 걸어잡고 했을지 싶어요. 요전에 한 2세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면서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고 대신 용서를 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버지보다 낫단 생각을 했어요.

-내홍을 겪으면서 상처가 클 것 같습니다.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American Sports University 아메리칸 스포츠대학교

대한 신학대학교 스포츠학과에서는 선교지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태권도 골프 체조를 통해 사역을 할 수 있는 전문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 학사과정 모집
 - 전공과목 : 골프, 체조, 태권도
 - 입학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 문의전화 : 골프 310-598-0746
 - 체조, 태권도 323-608-1010
- 전문인 선교에 관심 있는 분
 - 골프를 배우고 싶은 어린이(7~11세)환영 (픽업가능)

문의전화 :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주소 : 3128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암 치료의 희소식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했습니다.” 외 다수의 저자. 스페인에서 수술 않고 한방으로만 암치료를 유명한 한동규 박사의 미국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세포가 고품으로 녹아나오지 않으면 암 치료 약이 아님. -한동규-

미국 연락처
임마누엘선교회 T. 213-235-5800/ 213-252-9036

HANA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
LIC #OH66712

1948년생 입니까? 65세가 되었습니까?

저희 하나 건강 보험에서는 65세가 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또한 메디칼의 자격이 되는지 그 외의 다른 정부의 건강 보험 혜택에 대한 조언 드립니다

궁금하시면 저희 하나 건강 보험의 세미나에 참석 하시거나 520 S VIRGIL #204, LA, CA, 90020에 찾아 주시면 무료로 상담 조언 드리겠습니다.

- 특별히 메디케어 B와 메디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 건강 보험에 전화 주시면 메디케어 파트 A의 신청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 65세가 되었지만 메디케어 크레딧이 부족하신 분들은 하나 건강 보험에 전화 주시면 메디케어 신청에 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하나 건강 보험을 통해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을 가입 하신 분과 서울 메디칼 그룹의 멤버는 아래의 치과에 가시면 보다 친절하게 치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BRIGHT DENTAL GROUP [LA Office 213) 487-7771] [OC Office 714) 523-2828]

저희 하나 건강 보험에서는 매주 각 지역 사무실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칼 혜택의 변화에 대하여 세미나를 하여 드립니다. 세미나는 전화로 일정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칼 메디케어 동시 소유자는 참석하여 변화하는 보험혜택에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건강 보험의 세미나는 특정 상품을 광고 하거나 판매 하지 않습니다.

Los Angeles office 520 S. Virgil Ave. Suite 204,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500-4563	Buena Park office 6011 Orangethorpe Ave.#101, Buena Park, CA 90621 Tel. 714) 251-3500	Rowland Heights office 1722 Desire Ave. Suite 106 Rowland Heights, CA 91748 Tel. 714)715-6345
----------------------------------------------------------------------------------------------------	------------------------------------------------------------------------------------------------	--------------------------------------------------------------------------------------------------------

213-500-4563
Customer Service
1-855-386-3088

이 광고는 한인 최대 메디칼 그룹 서울 메디칼 그룹 협찬입니다.

현재 출석 성도는 1000명에서 1200명 정도입니다. (안 좋은 일이 터지니) 처음엔 청년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다행인 건 교회 분위기가 시끄러워도 교인들 안에 조금씩 분별력이 생기는 거 같고, 교회가 회복되는 단계 속에서 아프지만 반드시 거치고 가야 할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하나되는 것 밖에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느 성도는 '목사님은 과거를 몰라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오히려 '과거를 모르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영적 치매에 걸리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전 것은 흘려 보내는 자세죠.

그나마 이 와중에 교회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고, 젊은이들이 하나 둘씩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교회가 지리적으로도 한인타운 중심에 있고 또 역사도 있으니 올바른

고 높은 것보다 치료하면서 나아가야죠. 약한 자들보다 선한 자들이 더 많고, 교회를 비난하는 자보다 기도하는 자들이 많으니 감사한 일이지요. 교인들이 연말과 정초를 맞아 기도 모임도 시작하는 등 신나있어요. 이번에 새로 장로가 된 분들도 열정을 갖고 해 나가겠다는 자세구요. 미래를 바라볼 때 신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2세들에게 도전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교회 갈등이 2세 목회에 치명적이라 하셨는데 여기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주일에 EM에서 45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리다 금방 1천명 모이겠다 싶었는데, 싸움이 터지니 가장 먼저 빠지는 사람들이 2세들이더라고요. (교회 문을 잠그고 난

서운 것이 정서거든요. 1세 목회자의 정서와 2세 목회자의 정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거기서 오는 불화와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1세 목회자들이 2세 목회자를 볼 때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자세로, 서로가 믿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2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텍사스 빛내리교회에서의 4년간은 1세 목회를 위한 '대학교 과정'과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1세들의 정서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OMC로 보내셨는데, 그런 준비가 없었다면 저도 갈팡질팡하고 당황했을 거예요. 다행히 준비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네요.

-모든 목회자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데.

2세 목회를 위해 1세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각 교회마다 개별적으로 EM을 두려 하지 말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힘을 좀 합쳤으면 좋겠다는 구상입니다. 가령 10개 교회가 동역해서 2세들에게 피부를 예산을 합쳐서 함께 하나의 EM 교회를 세우는 식인 거죠. 2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랑 200명 모여서 하는 건 분위기가 사뭇 다르거든요. 교역자도 5명일 때와 10명일 때는 시너지가 달라요. 한인타운에서 아무리 대형교회라 해도 EM이 제대로 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럴 바엔 차라리 하나로 합치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늘 교인들에게 소망을 불어 넣으면서 얘기하는 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다 죽은 것 같이 보여도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남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 올리고 밥 먹는 것보다, 가서 밥 하는 것부터 배우고 김장하는 것도 배우면서 우리의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기쁨이 있잖아요. "옛날엔 우리가 이랬는데"하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해요. 과거의 영광 바라봤자 쓸데 없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룬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듯 앞만 바라보며 가자는 거죠.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할 일 하면서 가면 된다고요. 정한나 기자

연합과 지역복음화 사명 감당할 것

동부교협 신임회장에 김병학 목사



동부교협 정기총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동부지역교역자협의회(동부교협)는 지난 17일 정기총회를 열고 2013년을 이끌어 갈 회장과 임원단을 선출했다. 지난 1년간 회장으로 섬겨온 김민섭 목사(엠마오장로교회)의 사 회로 열린 이날 모임은 1부 예배, 2부 총회 순으로 이어졌다.

예배에선 바위선교회 김대평 목사가 설교를 전했고, 이어 광고 시간에 김민섭 목사가 학원선교 비전을 두고 남가주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글로벌 유스(대표 김승희)와 KCCC에 선교비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김병학 목사(주님의교회)를 회장으로 추대했고 부회장에 문병용 목사(유니온교회), 총무에 전병주 목사(나성한

미교회), 회계에 송병주 목사(선한정지기교회), 서기에 박승규 목사(동부 사랑의교회)가 각각 선출됐다.

회장으로 추대된 김병학 목사는 "남가주 동부교협 목회자들은 연합에 힘쓰고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 왔다"며 지금까지 내려온 아름다운 전통을 잘 이어서 더욱 연합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가 목회자들의 건강을 위해 특강을 전했고 이정근 목사(유니온교회 원로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이날 동부교협은 지난 1년간 목회 일선에서 수고한 동부지역 목회자 가정에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더하기도 했다. 정한나 기자

1세대의 악(惡), 2세대 영성 죽이는 독(毒)

신앙의 바통 차세대에 이르려면 어떻게?

서서 부흥하는 건 금세이겠다 싶어요. 병 걸렸다고 병에만 집착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나이가 드니 당뇨병에도 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졌어요. 그렇다고 다 포기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나이가 마흔 돌인데, 사람으로 치자면 저처럼 중년이나 성인병이 올 때도 됐죠. 우리 교회의 경우 일찍은 건데, 약 먹으면서 갈 길 가자는 주의예요. 완벽해질 때까지, 혹은 다 정리될 때까지 손 놓고 있지 말고 교회적으로 할 일은 하면서 전진하자는 겁니다.

-내년엔 교회적으로 어떤 일들을 추진할 계획인가.

우리 교회는 임동선 목사님 시절부터 시작해 선교, 교육, 봉사 면에서 주력해 왔습니다. 선교나 교육 면에 있어선 어느 이민교회에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잘 해 왔다고 생각해요. 다만 봉사 면에서는 좀 약했죠. 교회 안에서만 해 왔는데, 집안에서 엄마가 자녀를 위해 봉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는 OMC가 부끄러운 일, 창피한 일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커뮤니티를 섬김으로 이 미지 쇠신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7월 말부터 다시 차터스쿨을 시작하기로 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야 까도 말했듯이 병 들었다고 자리갈

리를 피우는 통에) 지금 남은 사람은 120명이나, 한 세대의 악이 다음 세대를 죽인다는 것이 OMC에서 현실적인 그림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세계선교대회에서도 항상 부르짖는 게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투자는 없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으면 되겠냐는 겁니다. 집을 하나 지어도 1백만 뒤를 바라보고 지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당장 자신들만의 만족에만 머무르고 후손들이 바통을 잡고 해 나갈 토대를 마련해 놓는 데엔 소홀하다는 거죠.

-EM 목회에 오랜 경험이 있으신데, 2세를 쪽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2세들에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갈팡질팡하고, 리더가 없다는 면에서 문제가 많죠. 그래서 2세 목회자들 만날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목회하겠느냐"고 충고하기도 해요.

오는 12월 26일부터 3박4일 동안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하이어콜링(Higher Calling)' 대회에서도 2세 목회자들을 위한 트랙을 따로 마련했어요. 2세 목회자들이 한인교회에서 살아남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1세들과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정서가 달라요. 보통 언어만 다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문화보다 더 무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이사의 명가 삼성통운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 (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미와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약도: Bus Stop, Lajolla, Fairfax, ORT, 맥도날드, Wilshire



부흥을 사모한다면 '성령'과 '말씀'의 두 날개로 교회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라. 성령과 동행할 때 영혼이 혁신되고, 감정이 혁신되고, 교회가 혁신된다.

미주 한인교회의 오랜 목회 경험과 더불어 탁월한 리더십을 자랑하는 정인수 목사(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가 자신의 목회 노하우를 담은 책 '성령으로 혁신하는 리더십'을 펴냈다.

정 목사는 교회 내분으로 연속 3번이나 담임 목사가 바뀌는 가운데 1995년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의 6대 담임으로 부임해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크게 부흥시켰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부흥의 하나님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혁신의 패러다임으로 건강하게 세워진

성교 공동체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특히 그는 "리더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오히려 변화를 주도하고 앞장서야 한다. 그 가운데 새 길을 내고 많은 이들이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도전한다.

그러면서 정 목사는 이 책에서 '성령', '혁신의 리더십', '선교' 등 3가지 열쇠를 통해 보다 이런 도전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이어나간다.

정한나 기자

성령, 예배, WCC... 한국 신학계, 올해 무엇을 남겼나

어느 때보다 논쟁과 토론 활발해 내년에도 각종 이슈



기독교학술원은 올초 '왕의 기도'로 알려진 손기철 장로의 사역을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2년 한국 신학계는 어느 때보다 다양한 주제들로 논쟁과 토론이 뜨거웠다.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가 추락하자 '영성 회복'이 핵심 논제가 됐고, 그 연장선에서 '성령론'이 부각되기도 했다. 더불어 '예배'와 관련된 주제들도 자주 거론됐고, 무엇보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학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2012년 신학계 키워드는 '성령'

'성령'이나 '영성'은 올 한 해 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단어들 가운데 하나다. 국내 기독교 교세의 점진적 쇠퇴와 교회의 이미지 실추가 맞물리며, 교계 전반에서는 "영성을 회복하자"는 구호가 크게 자리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많은 학회들이 '기독교 영성'을 탐구했고 그 과정에서 '성령 운동'과 '은사' 등 신앙의 실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논쟁의 대상이 됐다.

눈길을 끌었던 건 일명 '왕의 기도'로 알려진 손기철 장로(해브리터치 미니스트리)의 사역이 교단 차원의 대응으로까지 이어지며 신학계가 이를 조명했다는 점이다. 예장 합동은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손 장로의 사역을 다루며 "영적·지적 교류를 삼가며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올초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 박

사)은 '손기철 장로의 치유 사역과 신학에 관하여'를 주제로 발표회를 갖기도 했다. 당시 주발제자였던 현요한 교수(장신대 조직신학)는 손 장로의 '왕의 기도'가 "치유를 받지 못한 채 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실망감과 죄책감을 안겨 줄 수 있다"고 단정을 지적하면서도 "손 장로가 신사도 운동을 추종하거나 전파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그를 '이단'으로 몰고가는 것에 반대했다. 당시 손 장로의 '왕의 기도'는 그 핵심 사상이 '신사도운동'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단성 의혹을 받던 상황이었다.

손 장로의 경우에서 보듯 '신사도운동'도 신학계 안팎에서 뜨거운 이슈로 주목받았다. 이 역시 최근 '성령 운동'의 범주에 속한 것으로, 기독교인들이 갈망하는 '영성 회복' 바람을 타고 급격히 그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신학계, 특히 개혁주의 신학자들로부터는 '이단 사상'으로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얼마 전 한 학술대회에서 이승구 교수(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는 이 신사도운동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해 "오늘날에도 예언자들이 있다는 것"이라며 "성경 이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이런 생각은 그 동안 장로교 신학과 정통 신학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해 온 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신사도운동에 대해 배본철 교수(성결대 역사신학)는 "사도적 계시가 오늘날에도 가능하다고 보는 신사도운동의 주장은 성경 외 다른 계시의 길을 열어 놓는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배 교수는 "지금까지 이 신사도운동 비판은 주로 개혁주의에 기반을 둔 장로교회들에서 이뤄졌는데, 보다 많은 교파들이 여기에 참여해 그 위험성을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언과 관상기도, 예언 등 성령의 사역과 관련된 주제들이 활발하게 다뤄진 2012년 한 해였다.

예배, 여전한 관심의 대상

교회를 '예배 공동체'라 부르는 만큼, 예배와 관련한 각종 주제들은 올해에도 빠짐없이 토론에 올랐다. 특히 기존 예배 형식과 차별을 둔 소위 '이머징 예배'(emerging worship)는 그 가톨릭적 특성 때문에 여전히 '비판적 검증'을 거치는 중이다.

얼마 전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종환 교수는 한 신학 컨퍼런스에서 '예배학'을 다루며 이머징 예배가 "한 개인의 회심을 넘어 탄식과 죄의 고백, 침묵 등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떤 절제된 결론을 유도하기보다 열린 결말로 다양성이 공존하는 예배 형태"라는 점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주로 보수적 성향을 지닌 학자들은 "지나치게 신비함을 강조한다"는 이유로 경계의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 외에도 정형화된 예배의 형식, 즉 오늘날 장로교와 감리교, 오순절 등의 구분없이 각 교파의 예배가 저마다 비슷한 형태를 띠는 것에 대한 비판적 성찰도 있었고, 현대 예배가 지나치게 '설교 듣기'에만 머물러 수동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한국장로교 1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 당시 개혁주의 예전을 시도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내년, WCC 논쟁 뜨거워질 듯 창조신학도 주목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올 한 해 신학계의 뜨거웠던 이슈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었다. WCC 제10차 총회가 내년 10월 부산에서 열리면서 보수 신학계를 중심으로 그 신학적 정체성을 '밝히는' 자리가 다시 마련됐다. 주로 WCC의 '종교다원주의'와 '용공성'이 논란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반 WCC' 세미나가 심심찮게 열렸다. 그러나 보수 진영의 공세에도 WCC 찬성측이 크게 대응하지 않으면서 격렬한 찬반 토론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 문제는 총회가 열리는 내년,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 김동호 목사가 칼빈의 '이중예정론'을 비판해 논란이 되기도 했고,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자살'은 구원론과

관련해 다양한 신학적 토론의 대상이 됐다.

한편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교진추)의 청원으로 중·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실린 '말(馬)의 진화'와 '시조새' 관련 부분이 수정 혹은 삭제됐다는 소식이 각종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과거부터 이어져 온 '창조론'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격화되기도 했다. 창조신학 분야 전문가인 조덕영 박사는 "지금까지 신학계가 구원에 집중했다면 앞으로 창조신학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수 교수(명태대 조직신학) 역시 "창세기의 다양한 주제들을 좀 더 객관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인류의 기원 문제 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관계 등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학자들, 마음 열고 서로 교류해야

내년에는 논쟁적인 신학적 주제들을 두고 교파간, 혹은 신학사조 간 보다 활발한 토론과 교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신학자는 "올해도 그렇지만 이전부터 신학적 문제들이 주로 장로교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감이 있다"며 "장로교가 한국교회 다수를 차지하긴 하지만 신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계층의 신학자들이 신학 논쟁에 참여해야 한다. 여기에는 장로교는 물론 모든 신학자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자세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WCC 총회의 국내 유치 소식이 전해지자 WCC 신학의 문제를 고발하는 신학 모임이 보수 신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어져 오고 있다. 사진은 예장 합동총회 권성수 목사(대구 동신교회)가 한 학술대회에서 WCC의 신학을 비판하던 모습.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이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감기약 처방
 한약으로 한방에 김기뚱
 증상별 처방/천연 한약제
 3-7일분 처방 가능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여행자 보험 / 건강보험/교통사고 (스마트폰 검색가능)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cvera.com

크로버 탄소매트 crover GREEN HOME INNOVATION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TWIN	FULL	QUEEN	KING
\$249	\$289	\$349	\$429

전기선이 아닌 탄소 발열체 원단 사용

건강과 따스함을 동시에 선물하세요!

- 전자파 차단: 매트면에 전기선 대신 품의소재 탄소원단이 들어가 있어 전자파 걱정을 없앴습니다.
- 전기세 절감: 열효율이 뛰어나 전기사용료를 절감해 줍니다. 매일 10시간 사용시 한달 전기사용료 \$3미만
- 취침기능/온도조절기능: 좌우 분리방방 10시간이상 사용시 자동꺼짐
- 초극세사 원단 사용: 고급스러운 품일 패턴으로 실내분위기와 잘어울립니다.
- 원적외선 방사를 90%: 일반 전기요의 달리 원적외선 복사열 발생으로 몸 전체를 온화하게 하며 원적외선만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1 YEAR WARRANTY: 확실한 품질보장 제품문제시 1년간 무상수리

제품 바닥면을 고급 원단에 도트 처리하여 미끄러짐을 방지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메트 안을 비교해보세요!

베이지 라벤더

속면! 곰팡이 억제! 향균! 냄새 제거!

Los Angeles: 정소백화점 (213) 389-1111, 김소전기 (213) 386-4882, ABC 플라자 (213) 386-1155, 헬스코리아 (213) 487-4986, -캘러리아 (323) 733-4986

Fullerton: 나눈 홈쇼핑 (714) 515-3408, 헬스코리아 (714) 521-1005

Cerritos: 이불나라 (562) 402-3737, Garden Grove, 주방나라 (아리랑마켓) (714) 539-8860

San Diego: 이불나라 (시온마켓) (858) 496-0766, *국 데이비스 (858) 874-7777

Santa Clara: 이불나라 (408) 834-3004

고국 사랑 대잔치
 한국에 계신 부모님, 친지, 지인들께 무료배송 해드립니다.

제품상담 및 대리점 문의 323-588-7277 info@crovergreen.com 2605 S. Santa Fe Ave. Vernon, CA 90058

www.crovergreen.com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디도서 1:5~1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교회다운 교회가 있고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첫째로 세우신 목자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우시고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여야 할 것이고 그 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이끌며 양떼들로 하나님 기도에 합당한 성도되게 하기 위해서 목회 방침이 확실하고 영적 체질 신앙이 하늘나라로 통하는 교회가 됐을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되어져야 하고, 그 말씀에 부딪히는 심령들이 죄악의 응어리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거듭나서 의인의 반열에 거룩한 성도로 구원을 얻어야 하며, 구원 얻은 성도들이 성령에 이끌리는 영적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서 목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에 합심 전력을 할 수 있을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지방색을 드러내며 폐당을 짓고 서로 헐뜯고 싸우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 가장 바로 믿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전심으로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 바울의 선교를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이방인으로서 디도(원어로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어지고 회개함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말씀을 통하여 체계적인 복음을 깨우쳐 주고 기도 훈련을 통하여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영력으로 무장하게 하고 또 사도 바울을 함께 모시고 살면서 바울 사도께서 밤낮 소원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몸부림치는 삶의 목적이 된 그 것을 디도가 잘 깨달았습니다. 디도는 성경에서 디모테와 같이 사도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사도 바울을 믿음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영적 성과를 위하여 자기 생애를 헌신하고 희생하며 전도하고 봉사하기를 힘쓰다가 사도 바울의 그 신앙 생활, 사명 생활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과 신학 또 사명 의지와 또 희생 봉사하는 것을 그대로 전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바울은 거침없이 사랑하는 아들 디도라고 불렀던 겁니다. 아버지 바울을 믿음으로 아주 많이 닮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의 신앙생활이 상당히 성숙되고 또 수준급으로 자라게 됐기 때문에 그를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남겨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자를 세워야 하는데 그때엔 신학교 제도가 없었던 시절이라 그 누구를 교회의 목자로 세우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다가 떨어뜨려 놓은 이유는 그곳에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진 여러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들마다 무슨 부족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아 주고 또 바울이 명한 대로 각 동네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 목회를 위한 목자를 여기서 장로라고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전부 목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를 어떤 기준으로 세우느냐면 6절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신앙인으로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책망 받을 약점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한 것은 일부다처제로 여자 여러 명 데리고 사는 일들이 아주 보편화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 자녀들, 아내나, 부모님들의 믿음이 하나같이 확실한 가정을 꾸리는 사람이야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목회자를 일명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또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들이 약점이 많고 책망 받을 일이 많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칼날같이 찢어 쪼개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게 될 때에 자기 입장 때문에 힘 있는 교훈을 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고 그 반대로 그 약점이 상대방들로 하여금 교육적 성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애타게 복음을 위하여 순교적 각오로 피나는 수고와 고생과 노력을 하면서 그가 마지막 순간 순교하기까지 힘쓰고 애썼던 것은 자기 영혼이 하늘나라에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기 위함이 첫째였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성과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를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엮으려 하는도다”

이 말씀은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여러 집단이 있었는데 거기의 지도자들은 아무하는 말을 해서 상대방의 주머니를 노리고 뺏어 챙기면서 못된 짓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그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 중에도 유대교에 입교해

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까지 포함된다 고 하는 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고집하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아주 험뜯고 비방하면서 예수 같은 거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선동하면서 많은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엔 영지주의도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종치 아니하고, 즉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다는 것은 진리도 아니고 구원의 소망도 없고 아무 것도 아닌 헛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주머니 털어먹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들이 망쳐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가정은 하나님을 가정으로 모시고 하늘 복을 얻어 하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가정이 항상 영적으로 하나 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신령한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반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그레데 사람들처럼 거짓말쟁이, 또 악한 짐승처럼, 또 배반 위하는 거짓말쟁이 되지 말자는 것과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대접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기대와 관심과 대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레데인들의 악함을 엄히 꾸짖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영적 소망의 구원을 얻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 유대교의 선동에 휩쓸려 속아서, 멸망의 길로 빠져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기에 사도 바울 혼자서는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다 보살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그레데 교회의 총책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손발 노릇을 잘 하므로 그레데의 복음화를 위하여 놀라운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동하는 생활의 모습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전도의 문을 닫게 하고 교회를 비방하게 하고 못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시인하고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자, 가증한 자가 되고 복종치 아니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도 그간에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하는 방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선교사가 여러 군데 있으면 그 지역 단위로 각 선교사를 보내서 교회 목회 사역을 하게 하고 그 어느 지역에 미주면 미주, 호주면 호주, 또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유럽이면 유럽 이런 곳 에 감독자들 꼭 파송해서 그 감독자로 하여금 그 지역 모든 선교사들을 총괄해서 바른 사역을 하도록 보살피고 이끌어 주는 역할로 선교하는 방식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훌륭한 목자를 모셔야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참 선한 목자를 통하여 바로서서 하나님 앞에 목자의 신앙처럼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생활 신앙으로 본을 보이고 또 은혜와 덕을 끼치면서 선교에 힘써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은 곧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고 영광스러운 자격을 갖추 수 있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바로 세워서 세계 선교에 여러 분들이 이 교회 역사 끝날까지 지원하는 열심으로 앞장서서야 합니다. 자기 개인의 생활이 모범적인 생활로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모습을 갖추어 갈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8:18~20)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토요일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미국 기독교일보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애장증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2012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 목사고시, 안수기념)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a.edu</p>	<p>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p> <p>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p> <p>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장: Sex&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p> <p>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p> <p>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p> <p>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p>	<p>솔로몬 대학교</p> <p>말씀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학위: 신학 학사/석사/박사(BA, M.Div, Th.D), 교회음악, 문예창작 장학금 혜택 총장: 백지영 목사 부총장: Dr. Brent Price</p> <p>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p>	<p>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p> <p>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p> <p>1749 W.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E-mail, hjung3155@gmail.com</p>	<p>미주대한신학대학</p> <p>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디모데의 준비.</p> <p>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p>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p> <p>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7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Fax, 310-793-2297 www.cohenuiversity.ac</p>	<p>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p> <p>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p> <p>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p>	<p>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p> <p>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학 목사 부 학장: 김영학 목사</p> <p>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Fax: 310-609-1415</p>	<p>미주성결대학교</p> <p>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p> <p>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org</p>

2013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을 마치고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1월 2일 (수)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와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본교 소개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South Bay Work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장업을 지원함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윌셔 + 웨스트)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사업체 비영리단체 설립 해산 및 장부정리(Quickbook)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방법
- 크레딧카드 빚, 부동산관련 세금문제해결(1099-C)
- 저소득층 세금환급(EITC)
- Payroll & Sales Tax 보고(Paycheck service)
- IRS, SBOE, EDD, FTB 세금문제해결(Levy & OIC)
- ITIN(개인 납세번호)신청 및 공증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이정은 CPA

Tel (213)387-2004

Email상담환영 :
chungleecpa@hotmail.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사우스 베이 하버시에 있는 가나교회에서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 선발을 공고합니다

Gana Church in the city of Harbor City at South Bay
happily announces the scholarship for students

아래

모집마감(Due Date):
December 28th, 2012

자격요건(Qualification):
Students currently enrolled in city college, university, special college or high school seniors in Southern California

발 표(Notifying Method):
Will inform those who are qualified individually

제출서류(Submitting Doc.):
Application with additional required documents

혜 택(Amount):
\$ 500.00 for each

대상인원수(How many):
8 students

제 출 처(Sending Address) :
Gana Scholarship Committee
2601 E. Victoria St. Spc. 312, Rancho Dominguez, CA 90220
email: ganachurch@hotmail.com

관심 있는 모든 학우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 하셔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사진과 함께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nyone who is interested in Gana Scholarship check
www.ganachurch.org and
download the application. Fill out and mail or email to us.

가나교회 장학부
Gana Church Scholarship Committee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에 류응렬 목사 청빙

남가주사랑의교회로 부임한 노창수 前 담임 후임으로

미동부 최대 한인교회인 와싱턴중앙장로교회가 제 3대 담임목사로 류응렬 목사를 청빙했다.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청빙위원회(위원장 박동수 장로)는 지난 12월 12일 모임을 갖고 만장일치로 류응렬 목사를 담임목사로 추천했으며, 담임목사 청빙건은 12월 16일 임시제직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담임목사 청빙확정 건에 관한 임시공의회는 12월 23일(주일) 각 예배(1-4부) 후에 열리며, 18세 이상 모든 세례교인은 참석할 수 있다. 공동의회 참석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청빙이 확정된다.

한국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설교학 부교수인 류응렬 목사는 현재 안식년을 맞아 미국 뉴저지주 헬러타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수 장로는 “지난 12월 청빙위원회 모임 이후 류응렬 목사님에게도 공식적으로 청빙의사를 전했으며, 류 목사님도 청빙을 수락하고 총신대학교에 상환을 알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류 목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대학원(영문학 학사/석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목회학 석사), 고든콘웰신학교(신학 석사), 서던침례신학교(철학 박사, 설교학 전공) 등에서 수학했으며 동일교회 지휘자, 전도사, 강도사, 중국선교사, 뉴햄프셔장로교회 EM목사, 인디애나 은해장로교회 EM목사, 분당중앙교회 협동(교육 목사(2003-2011년)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설교학 부교수(2004년부터 재직), HMC(Heavenly Mission China) 대표, 미래목회포럼 자문위원, 개혁신학회 편집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청빙위원회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청빙과정을 공개했다. 박동수 장로는 “본교회 부교역자들 도 후보 대상이었기 때문에 본교회 원로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님 들은 제외하고 청빙위원회를 구성했다. 그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빙 작업에 임했다. 최대한 바람직한 청빙을 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비공개 추천방식으로 진행했다. 추천자로는 교계원로와 1.5세 목회자 중심으로 미국에서 4명, 한국에서 1명, 캐나다에서 1명 등을 세웠다. 현재 담임목회를 하고 있는 분은 제외하고 부목사와 신학교 교수 중심으로 추천을 받되, 최종 대상자는 청빙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기로 했다”며, “자격은 영성훈련을 잘 하고 하나님 말씀을 효과적으로 선포하시는 분, 목자의 마음과 성경적인 감독의 성품을 가진 분, 전도와 선교에 사명감을 가진 분, 차세대를 품을 수 있는 분, 본 교회가 속한 PCA의 개혁주의 신앙 노선에 부합한 분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류 목사의 경우는 올해 8월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순장 특강을 마친 후 여러 명의 순장들로부터 검토 대상에 넣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후보



류응렬 목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청빙위는 “류 목사님의 설교와 글(저서, 논문)들은 인터넷상에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으며, 미주에 계셔서 쉽게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1세지만 미래지향적이고, 젊은 세대에 대한 열정이 넘달랐다. 그리고 교수생활을 하시면서도 방학 때마다 중국, 중남미 등으로 단기선교를 다니며 선교의 분을 보이는 등 우리가 정한 원칙에 가장 부합했다”고 밝히며, “원래 내년 2월까지가 안식년으로 이미 정한 일정들이 있고, 안식년을 마치고 재직중인 학교와도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면 3월 이후에나 부임이 가능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조요한 기자

장애우사랑교회 주최 구주탄생 찬송가 경연대회 열려



양로병원의 노인들과 함께 하는 찬송가 경연대회가 장애우사랑교회 주최로 올해도 열렸다.

장애우사랑교회(오진형 목사)가 성탄을 맞아 양로병원 노인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대회를 15일 오전 중앙장로병원에서 개최했다. 대회 주최는 장애우사랑교회, 주관은 오프운데이션(Oh Foundation)에서 했다.

주최측은 “장애우사랑교회에서는 12년째 양로병원 봉사를 하고 있으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치매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매일 찬송가를 암송함으로써 소망을 드리는 찬양대회를 개최해 왔다”고 밝혔다.

행사에 앞서 예매는 인도 오진형 목사, 기도 마동환 변호사, 성경봉독 이기원 안수집사, 특수 필그림오케스트라, 말씀 및 축도 조천일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후 6:1-2)는 제목으로 설교한 조천일 목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은혜의 뜻은 ‘소생했다, 살아났다’는 말로 이는 예수님으로 인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살아났다”고 밝히며 “우리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혜를 받으면 우아해지고, 매력이 생긴다.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천국에서 영생할 것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 10명의 노인들이 경연대회에 참여해 6개월 동안 암송한 찬송

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을 불렀다. 주최측은 “이날 출연한 이들은 찬송을 사모하는 분들로, 찬송을 통해 삶의 목표를 가져왔기 때문에 뜻깊고 귀하다”고 밝혔다.

이 찬송가경연대회는 오프운데이션의 오전도 자매의 아이디어로,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6개월에 한번씩 개최되고 있다.

또 이 단체에서는 어려운 가정 형편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영어공부를 가르치고 있고, 특별한 아이디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동료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며 봉사하는 일을 펼치고 있다.

토마스 멩 기자

노인·저소득층 아파트 입주 도와드립니다

수년간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상대적으로 렌트비가 저렴한 저소득층 및 노인 아파트 입주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최종 입주를 위해 최소 수개월에서 5~6년 이상을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다. 신청 이후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어 포기하는 이들이 생기고도 한다.

특히 영어가 서툰 한인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찾거나 입주 담당자와 인터뷰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Excel Legal Center 대표 고한나 씨는 한인타운에서 이런 한인들을 위해 입주 과정 전반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 대표는 그간 한인 비영리단체들

이 서류 작성 대행에만 그치던 것을 개선해 정보 취득, 서류 작성, 영어 인터뷰, 최종입주까지의 모든 과정을 완벽히 대행하고 있다.

고 대표는 “수년간 금융 및 보험업계에서 일하면서 노년 및 저소득층을 위해 메디칼과 푸드스탬프 신청 등을 돕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인 및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일부 비영리기관과는 다르게 신청자의 입주가 끝나는 순간까지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LA 일대 수십개 건물의 입주를 대행하고 있는데 현재 입주 가능 유닛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 및 저소득층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시에서 지정하는 수입기준(1인 연17,940달러, 2인 연20,520달러, 3인 연23,070달러, 4인 연25,620달러, 5인 연27,690달러, 6인 연29,730달러)을 충족해야 한다. 또 신청서와 함께 소셜번호, 지난 5년간 거주주 주소, 그리고 정확한 연락처 등을 함께 제시하면 된다.

문의: 213-365-6622
520 S. La Fayette Park Pl. #501
Los Angeles, CA90057
(6+)사우스베일러한과대학 옆 흰색 빌딩)



고한나
Excel Legal Center 대표

대한민국 기독교의 밤, 2012년 한 해 결산

조용기·길자연·김삼환 목사 등 공로자들 시상



제23회 대한민국 기독교의 밤 수상자 및 순서자, 내빈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2년 한 해를 결산하는 12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주최 '제23회 대한민국 기독교의 밤' 행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2천여명의 정·교계 지도자 및 평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한국기독교 지도자상 시상식 순서로 진행됐다. 주요 수상자는 '한국기독교에 혁혁한 공을 세운 최고 지도자상' 정치부문에 **이승만** 건국대통령, 종교부문에 **故 한경직** 목사와 **조용기** 목사 등이 각각 선정됐다.

식전 공연 후 정학재 목사(한기총 공동회장)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는 하태초 장로(행사 준비위원장)의 개회선언과 정준모 목사(예장통합 총회장)의 대표기도 이후 홍재철 대표회장이 참석자들 앞에서 환영의 인사말을 전했다.

설교는 이만신 목사(한기총 중경회장)가 전했다. "대한민국과 기독교(시 127:1-2)"를 제목으로 이 목사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뚫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기미년 3·1운동에 참석하셨던 분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셨다"며 "대한민국이 출발할 때 이승만 대통령 지시로 이운연 의원이 기도하면서 국가가 기여한 바가 지대하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러한 분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축하하는 오늘을 참으로 귀한 밤이요 영광스러운 밤이요 기쁜 밤"이라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자"고 권면했다.

소프라노 길한나 교수가 축가를 부른 후에는 박근해 새누리당 후보가 영상 축사를 전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김용환 차관, 지덕 목사(한기총 중경회장) 등이 축사를 전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 밤에 홍재철 대표회장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우리나라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특히 전도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자유도 함께 보장돼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용규·이광선 전 대표회장님께서 사활하시면서까지 종교의 자유를 지키시고 한국교회 미래를 몸으로 지켜 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훌륭한 도덕과 법률을 갖추도록 정치인으로서 계속 노력하겠다"며 "오늘 수상하시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에 후배 기독교인들이 과연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 자성하

면서 더욱 분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환 차관은 "한국 기독교는 경이로운 성장과 더불어 의료와 교육, 복지, 사회통합 등 여러 분야에서 기여한 바가 실로 지대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변함없이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1부 예배는 최명우 목사(한기총 총무)의 내빈 소개와 찬송 후 조경대 목사(한기총 명예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자랑스런 목회자상에 길자연·김삼환 목사

박세현·최슬기 CTS 아나운서 사회로 이어진 2부는 테너 유성은 교수(순복음음산신학원)의 축가 이후 홍재철 대표회장 주재로 시상식이 진행됐다.

'한국기독교에 혁혁한 공을 세운 최고 지도자상' 이후 '한국기독교 자랑스런 지도자상' 시상식이 계속됐다. 목회자들 중 수상자는 △자랑스런 목회자상 **길자연** 목사(예장합동), **김삼환** 목사(예장통합) △자랑스런 부흥사상 **이신현** 목사(예장통합), **오관석** 목사(기침) △공로상 **지덕·이용규·이광선·임신형** 중경회장, **김준규·조경대·백기환** 명예회장 등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 △자랑스런 선교사상 최바울 목사(인터프) △자랑스런 의료선교인상 박진복 목사(로델교회) △자랑스런 밸런트스 송재호 장로(오문교회) △자랑스런 방송인상(성우) **김도현** 장로(경서교회) △자랑스런 음악인상 **윤복희** 권사(온누리교회) △특별공로상 **이상훈** 상임위원장(애국단체협의회), 이형규 총회장(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자랑스런 언론인상(TV부문) **김경철** 장로(CTS 기독교TV) 등이 수상했다.

이와 함께 특종보도상(기자)에는 각각 '나는 썬스다'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대해 보도한 국민일보 **유영대·백상현** 기자, 바깥잡한 이단 사역 방향을 제시한 한국 크리스천투데이 류재광 편집국장이 각각 수상했다. **윤복희** 권사를 대신해 수상한 **윤항기** 목사는 축하 공연으로 '여러분'을 색소폰과 함께 들려줬다.

조용기 목사는 수상자들을 대표해 인사했다. 조 목사는 "오늘 한기총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이상을 세상 어떤 상보다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상으로 느끼고 받아들였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후에는 서울역에서 노숙인들을 섬기고 있는 로렌스교회 박미향 목사에게 노숙인들을 위한 사랑의 쌀을 전달했고, 2014년 WEA와 2013년 평양 부활절 예배의 성공 개최, 한국교회의 화합과 일치, 발전 등을 위해 기도했다. 이대웅 기자

한교연 대표회장에 통합측 박위근 목사 단독입후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이하 한교연) 제2대 대표회장 선거에 박위근 목사(영천교회 담임)가 단독 입후보했다.

한교연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은 회원교단들을 교회수별로 가·나·다 군으로 나누어 해마다 각 군별로 돌아가며 대표회장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는 유일하게 가군에 속해 있는 통합측의 차례다.

박위근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

회의 직전총회장으로서, 한교연 초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등 이 단체의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 영남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원, 연세대 교육대학원,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등에서 수학했다.

한편, 한교연은 2013년 1월 31일 오후 2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정기총회와 대표회장 선거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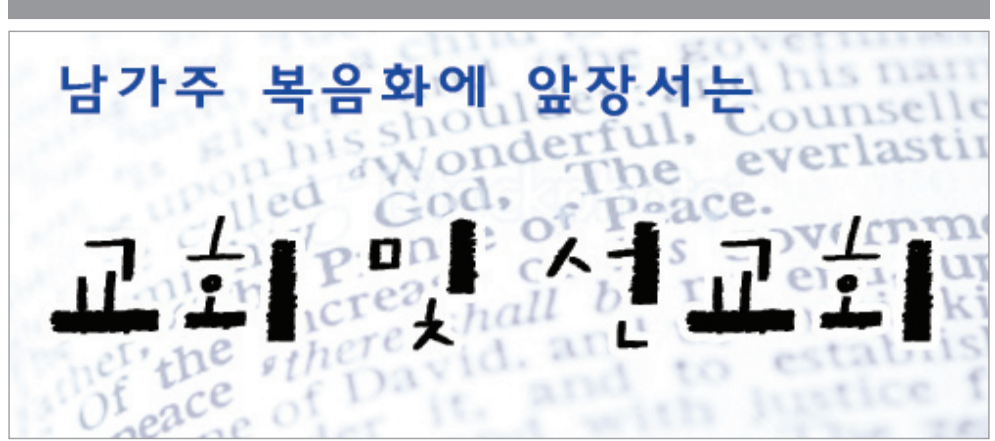
"북한의 로켓 발사는 반평화적 행태... 강력 제재해야"

살림을 꾸리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살림나비)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살림나비는 이 성명에서 "핵무기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며 동북아의 긴장을 야기하는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는 반평화적인 행태"라며 "정부는 북한 미사일 개발과 핵 개발에 대해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능하신 주권에 종속되어 있음을 믿는다"면서 "한국교회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생존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LA 지역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회
말씀으로 그들을 던져라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성경공부 저녁 7:30(목)
3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말-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김광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2부 오전 6:30 (말-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1부 오전 9:00 **김성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말-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샤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김수철 담임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 (다문타운 4기 Crocker St.)
1부기리예배 오전 7:00
2부새벽예배 오전 9:30

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최은형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주일 EM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6:00

세계선교회
하나님의교회, 사랑의교회, 세상의교회
927 S. Menlo Ave. LA, CA 90006
T. (213) 388-1927, 388-2105

박승부 장로
12/21수료생배출 현재3기수료생 양성중
-수기서로의료선교사 양성
-약물이나기구나로 소년으로 각종질병치료하는 의술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LA 2836 w 8th st #106 LA 90005, CA 90005,
OC 부활교회 (아리랑 미켓 뒤) T. (213) 381-7273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EM예배 오전 10:00

씨너지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8:00 **김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0:00 **김세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정장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50 새벽기도회 (말-금) 오전 5:25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토요일 오전 6:2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말, 마음, 꿈, 열매
1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T. (213) 387-1700 / F. (213) 381-2201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오전 7:30 (토)

임마누엘선교회
성령을 따라 (갈5:16)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말-토)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설 : Naturo pathy Clinic(말-금)
진료문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말-금)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호름, 소.친초 청신의 호름, 비르교회관의 호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말-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말-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새벽예배 오전 6:20(토)

LA사랑의교회
말씀의 지경을 넓히라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2013년 플랜기대 기간 (10/15~12/7) (올해65세 이상 건강보험)
메디케어A와 B가 있으세요?
C플랜을 무료로 가입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오랜 경력과 많은 지식으로 내 몸을 관리하듯이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의사 선택과 방문이 자유로운 PPO *진료비 부담이 전혀 없는 HMO

고한나
Lic.#0G86101
Hanna Chan Ko
문의 상담 (323) 896-0202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2부예배 오전 9:30(토) 오전 6:00 (토)
3부 오전 11:30

박석재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1:00
아동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유치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마원철 담임목사

인랜드온누리교회
말씀에 뿌리내려 자라나며 열매맺는 은혜의공동체
9806 Arrow Rt., Rancho Cucamonga, CA 91730
T. (909) 945-9191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청소년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유년/유아부 오전 11: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영원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사우스 베이 지역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영아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유/초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과 사탄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6: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EM) 오전 9:45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치소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 나무의 가치를 보나이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1부예배 오전 8:00 장례주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 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EM) 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후 1:00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회예배 오후 12:00

최상훈 담임목사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한국어 오전 10시 (월/목/토) 수요일예배 오후 7:45
오전 12:00 (분당)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성현경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나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1부 예배 오전 11:00 제자훈련 (수) 오후 8:00
2부 청년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 (목)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성경집회 (금) 오후 8:00

심형섭 담임목사

하늘빛 선교교회
예배에 생명을 잃고 믿음으로 혼란하며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공동체
1011 Grandview Ave. #D Glendale, CA 91201
T. (818) 247-467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뉴욕목회자들 금식기도로 2013년 연다

미국과 조국을 위한 신년금식성회 1월 1일부터 3일간



뉴욕목회자들이 1차 실행위원회 및 신년 금식기도 성회 준비모임을 가졌다.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저물고 있는 가운데 뉴욕의 목회자들이 2013년 새해를 뜨거운 기도도로 시작할 예정이다. 대뉴욕지구 한인목사회(회장 최예식 목사)는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펜실베이니아에 위치한 핀브룩스양관에서 '미국과 조국을 위한 신년 금식기도 성회'를 갖는다.

뉴욕목사회는 13일 오전 뉴욕비전교회(담임 황동익 목사)에서 41회기 제1차 실행위원회 및 신년 금식기도 성회 준비모임을 갖고 대규모 기도회를 통해 뉴욕 지역의 영적 부흥과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한 기도운동을 벌여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앞서 드린 예배는 김상태 목사(감사)의 사회로 조병광 목사(수석협동총무) 기도, 최예식 목사 설교, 김기호 목사(총무) 광고, 황동익 목사(부회장)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한 실행위원들은 1월 신년금식기도 성회, 5월 4주 목회자 체육대회, 9월 이집트-요르단-이스라엘 성지순례 등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특히 신년 금식성회 준비 기도모임을 겸해 열린 이날 실행위원회에서 회무를 모두 마친 후 신년 성회의 성공

적인 개최와 뉴욕의 영적 각성 및 부흥을 위해 다함께 뜨겁게 기도했다.

최예식 목사는 '광야에서 조심하라'(시 95:8)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광야는 피할 수 없는 신앙의 여정이다. 밤은 적막하기에 모든 짐승들이 나온다. 그러나 이 척박한 광야가 못 쓸 땅, 저주받은 땅은 아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며 '광야는 우리의 입술을 때로는 과격하게도 하고 감격하게도 한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간섭 아래서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 목사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깨우치며 아름다운 행복의 집을 이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된다'고 전했다.

총무 김기호 목사는 신년 금식기도 성회와 관련, '영적으로 혼란한 지금 이 시기에 한 해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자 성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뉴욕뿐만 아니라 뉴저지와 코네티컷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 참여하는 대성회로 진행하면서 이 동부지역 한인교회와 미국과 한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원 기자

뉴욕교협, 故 한기석 집사 유족에게 펀드 지원

회원교회들에 공문발송, KCS 통해 창구 단일화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종훈 목사)가 지난 3일 뉴욕 맨하탄 지하철에서 한 남성에 의해 떠밀리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故 한기석 집사(뉴욕우리교회)의 유족들을 돕기 위한 모금에 동참했다.

뉴욕교협은 10일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에서 열린 임실행위원회에서 참석한 이들에게 한기석 집사의 유족들을 돕기 위해 뉴욕한인봉사센터(KCS)를 통한 후원을 요청했다. 뉴욕교협은 이미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회원교회들에 발송, 협력을 당부했다.

뉴욕우리교회(담임 조원태 목사)의 성도였던 故 한기석 씨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성실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던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유족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내와 어린 나이의 애설리 양으로 주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

기 힘든 형편에 놓여 있다.

뉴욕교협은 KCS로 창구를 단일화 하고 이를 회원교회들에게 안내해 주고 있다. 후원을 원하는 교회나 개인은 체크 메모란에 'Emergency Fund'를 기재, 뉴욕한인봉사센터(35-56 159 St. Flushing, NY 11358)로 보내면 된다.

뉴욕우리교회도 故 한기석 씨의 장례를 교회장으로 치르고 장례비의 일체를 지불하는 한편, 존 리우 감사원장을 비롯, 뉴욕 정계 주요 인사들과 한인단체장들과의 협의 하에 한기석 씨 후원위원회를 조직한 상태다.

故 한기석 씨의 사망 사건은 이민자의 안타까운 죽음과 위험에 빠진 이에 대한 현장의 무관심 등이 결합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한인 사회를 비롯해 현지 언론과 방송들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김대원 기자

애틀랜타 교계 "미국과 조국 위해 기도"



애틀랜타 교계 지도자들이 미국과 한국을 위해 특별기도회를 드리고 있다.

미국과 조국을 위한 특별기도회가 16일 오후 6시 잔스크리칸인교회(담임 이승훈 목사)에서 개최됐다.

애틀랜타한인목사회가 주최하고 크리스찬타임스, 애틀랜타군선교회, 애틀랜타한인원로목사회가 주관한 이날 기도회에는 애틀랜타 한인교계 지도자 50여명 모여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위정자들, 지도자들 ▲미국 및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 ▲이명박 대통령과 위정자들, 안보 문제 ▲조국과 대한 ▲북한의 고난 받는 주민과 남북통일 ▲애틀랜타 교계와 지도자들,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진행됐다. 기도예 앞서 말씀을 전한 서삼정 목사(제일장로교회 담임)는 "이 시대의 어려움은 기

도하지 않아서이다.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깨어야 한다. 사회나 국가를 보기 전에 신학교와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봐야 한다. 신학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고 교회 안에 오만가지 잡화상이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서 목사는 "사랑의 연민을 갖고 기도하자. 사랑이 없는 기도, 헌신은 다 가짜이다. 한국과 미국을 사랑하자. 죄악 속에 허우적 대는 백성들을 사랑하자. 또 간절의 기도를 드려라. 지금은 역사의 마지막 때이다. 하나님 앞에 간청하지 않으면 응답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매달려 애타게 부르짖자. 오늘 드러지는 기도의 씨앗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앤더슨 김 기자

수익의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오픈뱅크 청지기 프로그램**
Open Stewardship Foundation

英 정부 "동성 결혼 금지도 강요도 안된다"

2015년까지 합법화 추진... 성공회 측은 반대 입장

동성 결혼의 합법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정부는 영국 성공회 내 동성 결혼은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다른 종교단체들은 원할 경우 동성 결혼이 가능하다.

영국의 주요 교단인 성공회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가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될 경우, 교회들은 이를 강제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마리아 밀러(Maria Miller) 문화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BBC와 인터뷰를 갖고 "영국 성공회 내 동성 결혼은 금지될 것"이라며 "다른 종교기관들은 그들이 원할 경우 동성 결혼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밀러 장관은 "우리는 동성 커플도 다른 커플들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큰 종교단체에서 이러한 권리가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하게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공평해야 한다. 교회들은 신념을 위해 싸우기도 하고 이를 분명히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한다. 동성 결혼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보수당은 여전히 영국 내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피터 본(Peter Bone) 하원 의원은 다른 의원들에게 "어떻게 장관이 결혼을 재정의하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보수파 리처드 드랙스(Richard Drax) 의원 역시 "도대체 무슨 권리로 종교적인 신

념 위에 그들의 법적인 도장을 찍을 수 있는지 영국 정부와 밀러 장관에게 묻고 싶다"며 "교만하고 견디기 힘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총리는 동성 결혼 합법화를 가장 앞서서 지지하고 있다.

영국은 법률적으로 이성간의 결혼만을 허용해 왔으나, 2005년부터 동성 커플이 부부와 똑같이 법적 보호를 받고 입양권과 상속권을 갖는, 이른 바 시민결합(Civil Partnership)은 허용해 왔다.

최근 보수당 의원들에 의해 진행된 여론 조사 결과, 71% 이상이 카메론 총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47%가 카메론 총리의 밀어붙이시 정책이 당의 명성에 흠집을 냈다고 대답했다.

결혼을위한연대(the Coalition for Marriage) 캠페인을 진행하는 콜린 하트(Colin Hart)는 "가장 최근의 여론 조사는, 총리가 동성 결혼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이, 선거에 위임하는 것도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모습에 대해 보수주의자들 내에서 번지는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관은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를 보존하기 위해 620,000명 이상의 서명이 담긴 청원을 내기도 했다.

현재 영국 정부는 영국 성공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 동성 결혼 합법화를 추진 중이다.

강혜진 기자

무신론자들 "예수 버려라" 대규모 광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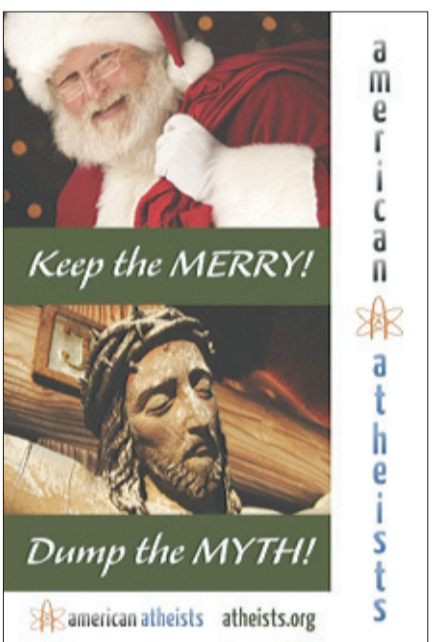
미국의 주요 무신론자 단체인 아메리칸에이씨스트(American Atheists)가, 크리스마스 앞두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화'를 버릴 것"을 촉구하며 뉴욕에 크리스마스 옥외 광고판 캠페인을 시작했다.

맨하탄 타임스퀘어 광장에 설치된 광고판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상 위에 즐거운 산타클로스의 이미지와 함께 "즐거움은 지키되, 신화는 버려라!"는 메시지가 있다.

이 단체 대표 데이비드 실버맨은 "우리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실상 종교의 탓에 걸린 무신론자임을 안다. 만약 당신이 신이 신화라는 것을 안다면, 거짓말을 하며 당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신화 없이도 즐거울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과 가족들에게 정직하라고 한다. 만약 당신이 신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의 가족들에게 말하라. 정직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했다.

무신론자가 되기 전, 감리교의 예배와 교육 목사로 20년 동안 섬겼던 맥베인 씨는 "성탄절은 함축된 종교적 의미 없이 더 즐거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절기의 아름다움, 즉 가족, 친구, 사랑은 과거의 신들과 무관하다. 이 절기는 죄책감과 정죄라는 종교적인 짐 없이 더 즐거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비신자는 혼자 아니며 사람들은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매년 옥외광고판 캠페인을 벌인다. 이 기구는 지난해 성탄절 캠페인 기간 동안 예수를 사탄이나 산타클로스, 그리스 신 포세이돈과 비교하는 광고판을 뉴욕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며 타임스퀘어에 내건 광고

지에 설치했다. 뉴저지 교회의 한 목사는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를 통해, "그 광고는 무지하고 저속하며, 세계 문화적 관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오직 어리석고 단체포적인 사람들만 예수를 그 셋과 같은 범주에 포함시킬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약 2000년 전 역사적 인물, 즉 종교적 리더이자 선생이 존재했음을 안다"고 덧붙였다.

이 무신론자 단체는 새 성탄절 광고판을 2013년 1월 10일까지 타임스퀘어 광장에 세워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주연 기자

"초등학교 총기난사 최악의 사건" 교계 충격

美 교계 지도자들은 이번 코네티컷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최악의 사건"이라고 평하며 애도하고 있다.

하비스트크리스천펠로우쉽 교회의 그렉 로리 목사는 그의 블로그를 통해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없는 최악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위로하며 자신이 2008년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을 저지른 남성의 냉혹함과 사악함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악이란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런 때 우리는 구세주가 오신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구세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빌리그래함복음주의협회의 대표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오늘 코네티컷 뉴타운에서 우리가 본 것 같은 무분별한 살인은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하고, 또 답을 찾게 한다"며,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성정은 악하며,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라고 말한다. 회

생자들과 그들의 가정과 전체 공동체로 인해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전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희생자들 한 명 한 명과 이 악랄한 행동의 결과로 지금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이 어두운 시간의 한복판에서,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와 평안을 간구하고, 미국이 뉴타운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안으며 그들을 우리의 기도로 감싸길 기도한다"고 했다.

사건이 발생한 뉴타운에서 토치미니스트리(TORCH Ministries)를 감독하며 커넥션교회(Connections Church)를 지도하는 록비 비치 목사는 "나는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 이 국가가 처해 있는 문화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목사로서, 나는 우리가 주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고통 받고 있다. 그들의 치유뿐 아니라 왜 이와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며 그들을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때다"고 전했다.

한주연 기자

O. C. / 얼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 (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 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업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뻑이는교회
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EL.562-691-0691. FAX.562-691-0698

1부 예배 오전 8:00 메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orkoreanchurch.org

1부 예배 오전 9시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시 30분
2부 예배 오전 11시 (토) 오전 6시
영어예배(1부) 오전 9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영어예배(2부) 오전 11시 금요일아

배명환 담임목사

로렘장로교회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956-7640 F 714-956-7909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손인식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크리스천이다. 내가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들을 누리시는 성도의 삶 선포와 구제의 사명으로 살린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월일예배 (수)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 성령강림 (매일 둘째 금) 오후 7:30

한중수 담임목사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242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 오후 7:30

지사론 담임목사
(매일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임으로 규합된 영혼구원과 해.님 나라를 이루는
실용화 생활 사명을 감당하려는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인도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영어중교동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중교동부예배 오전 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카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6: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섬김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린다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감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명'이 되자
www.samcare.org

박세록 대표

SAM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정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청년)예배 오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예배 오전 8:00 한어청년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EM/Youth예배 오후 12:00 오전 6:00(토)
AWANA 오후 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매월 마지막주)

최성은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 92806
T. (714) 632-9191, 9192 / missionway.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교동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c.org

주일예배 오후 12시 30분 성경공부 (화) 오후 8시 30분
중, 고등부 오후 3시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청년부 오후 3시 한국학교 (토) 오전 10

방익수 담임목사

사랑의방주교회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말씀으로 강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 92620
T. (949) 654-0191

1부예배 오전 7:30 5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12:15
3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12:15 새벽예배 오전 5:45 (화-금) / 6:00 (토)

김함요 담임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860-5451 / iloveccp.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교동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최상준 담임목사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시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1: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 치유예배 목요일 7:30
주일목상예배 오후 2: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4415 Imperial Hwy, Whittier, CA 90604
Tel: 562-903-2600, Cell: 714-600-770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입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 저녁 제공 케이머 tv 초고속인터넷, 냉방, 세탁, 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Merry Christmas



얼바인 할렐루야교회
 담임목사: 김삼도 목사
 15520 Rockfield Blvd.#F Irvine, CA 92618
 TEL.(949) 514-4346
 FAX.(949) 305-3951
 주일예배 오전 11:30-12:30
 주일학교 오전 10:00-11:00
 성가대연습 11:00-11:30

나성금란 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윤선식 담임목사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골드핑거
 김병호 사장
 975 S.Vermont Ave. #102
 LA CA 90006
 T. (213) 386-5858
 수제 양복의 명가.
 직접재단, 직접재봉

남가주 한소망교회
 지영환 담임목사
 2869 W. Pico Bl. Los Angeles, CA90006 T. (213)-219-7500
 주일1부예배 8:15,
 주일2부예배 11:00,
 수요일예배 7:30,
 새벽예배(화-토) 5:30

동양선교교회
 박형은 담임목사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1부 아침예배 오전 08:00
 2부 전통예배 오전 09:30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4부 영어예배 (EM) 오전 12:30

방주교회
 김영규 담임목사
 3735 Hughes ave. Los Angeles, CA 90034
 T.310-836-8342, 213-663-3301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리폼드 대학교&신학대학원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총장 조주호 목사
 1342 W.Adams BLLA, CA90007
 T. (818) 337-8280

풍성한교회
 박효우 담임목사
 2911 W.Beverly Blvd.,LA,CA90057
 T.(213)381-9490
 F.(213)385-9191
 주일예배 오전 11:00

하나로 커뮤니티교회
 양성필 담임목사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GRACE SILVER MINISTRY CENTER
 대표 최병수 목사
 15144 Genova Ct. Chino Hills, CA 91709
 Tel. 909-802-5857,
 Fax. 909-597-3601
 www.gs-ministry.com

벤추라감리교회
 최상훈 담임목사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회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가주왕성교회
 안경찬 담임목사
 2500 Wilshire Blvd.#700 LA,CA90057
 T. (213) 819-8811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아름다운교회
 고승희 담임목사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선한목자장로교회
 고태형 담임목사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동부사랑의교회
 박승규 담임목사
 5540 Schaefer Ave.Chino,CA 91710
 T.(909)5 90-3722 / F.(909) 548-3722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2:00
 Holy Wave(EM) 오전 10:15
 대학청년부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오전 6:30(토)

CMF선교원
 가정을 세우는 CMFMinistries,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대표 김철민 장로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714) 493-0191,
 (562) 684-4422
 www.GodFamily.com
 www.CMF.ORG

벤엘장로교회
 변병영 담임목사
 857 S La Brea Ave.,LA,CA90036
 T. 323-937-1732
 F. 323-931-2836
 1부 주일예배 9:30
 2부 주일예배 11:00
 매일 새벽기도 5:30

세계선교교회
 최운형 담임목사
 927 S Menlo Ave. LA,CA 90006
 T.(213)388-1927/ (213)388-2105
 http://www.worldmissio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동부사랑의교회
 박승규 담임목사
 5540 Schaefer Ave.Chino,CA 91710
 T.(909)5 90-3722 / F.(909) 548-3722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2:00
 Holy Wave(EM) 오전 10:15
 대학청년부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오전 6:30(토)

중부교회협의회
 회장: 곽소건목사(새순 커뮤니티교회)
 부회장: 박상열목사(반석교회)
 황 에스더목사(미주 송현성결교회)
 총무: 전동은목사(청소년비전센터)
 서기: 차권희목사(하늘영광교회)
 회계: 김순옥목사(스텐튼감리교회)

동부교역자 협의회
 회장:김병학목사(주님의교회)
 부회장: 문병용목사(유니온교회)
 총무:전병주목사(나성한미교회)
 회계: 송병주목사(선한청지기교회)
 서기: 박승규목사(동부사랑의교회)

인랜드교역자협의회
 회장:류수열목사(한울림교회)
 총무:박신철목사(인랜드교회)
 서기:이희철목사(갯스윌연합교회)
 회계: 윤석길목사(에덴선교교회)

미주장신동문회
 31대 미주장신 동문회
 회장: 김용호 목사
 부회장: 양옥석 전도사
 서기: 우상림 목사
 부서기: 장성영목사
 회계: 유미숙 전도사
 부회계: 차경미 목사

성탄을 축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14

밴나이스 연합감리교회

오경환 목사
6260 Tyrone Avenue, Van Nuys,
CA 91401 T. (818) 785-3256
www.vannuysumc.com

1부 예배(한어) 오전 8:30
2부 예배(영어) 오전 9:30
3부 예배(한어) 11:00 am



나성언약교회

이순환 담임목사
5260 Lincoln Ave., Los Angeles,
CA, 90042 / T.(323)349-0691

1부예배 오전9:00
2부예배 오전11:00
찬양예배 오후1:00
EM,교회학교 오전11:00
GCM 오후 1:00
금요기도회 오후8:00
새벽기도회(토,일) 5:00



나성한미교회

전병주 담임목사
2727 N.Durfee Ave.,Elmonte,
CA91732 / T.(626) 444-0058,
www.lahanmi.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
청년부예배 오후2:00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엄영민 담임목사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92683
T. (714) 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8:15
2부예배 오전10:00
3부예배 오전11:45
영어예배 오전10:00



한우리 장로교회

강지원 담임목사
1932 10th Ave. LA,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다이아몬드 감사한인교회

김일권 담임목사
451 W Lambert Rd(#204&205),
Brea, CA 92821 / T.(909)279-1919
www.dtkc.org

주일예배(장년) 오전10시30
(중,고등부) 오전10시30
(유년부) 오전10시30분
금요찬양 오후7시30분



토랜스 제일장로교회

이종민 목사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el. 310. 618. 2222
Fax. 310. 782. 093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6:00



글로벌 선교교회

김지성 담임목사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F. 909-396-177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10:00
3부예배 오후 12:00
EM 예배 오전 10:00



사우스베이 벤엘장로교회

김관중 담임목사
21519 Menlo Ave. Torrance,
CA 90502
Tel: 310.212.6369

주일새벽예배 오전6:0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10:55



인랜드교회

박신철 담임목사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성광장로교회

이상훈 담임목사
1359 W 24th St Los Angeles,
CA 90007. T. 323-732-344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11:00



유니온교회

문병용 담임목사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 T. 626. 858. 8300
F. 626. 858. 8303

1부예배 오전8:00
2부예배 오전 10시
3부예배 오전11:30
새벽예배(월-금)
오전5:30,(토)6:30 00



호놀룰루 한인장로교회

조일구 담임목사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T. 808-947-5252
F. 808-947-5151

1부예배 오전 8:40
2부예배 오전 10:40
3부예배 오후 1:40



예친교회

김민재 담임목사
955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257-9522

1부예배 오전10:45
EM영어예배 오후12:45
금요강해예배 오후7:30



월드크리스천 기도원

이 엘리야 목사
1331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383-3258, 213-725-3007

365일 예배안내
오전 5:30분,
오전 11:00,
저녁 7:00



갈보리선교교회

심상은 담임목사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 T. 714-229-8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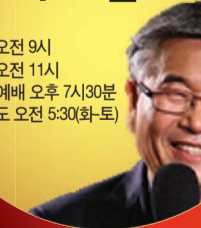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10:30,
새벽예배 오전5:30(월-금)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 T. 310-530-4040 Fax. 310-530-8400

1부예배 오전 9시
2부예배 오전 11시
수요침양예배 오후 7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사우스베이 목사회

회장: 구진모 목사
(시온연합감리교회)



벤추라카운티 교회협의회

회장: 이상영 목사 (카마리오연합 감리교회)
총무: 박민규 목사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회원교회
다우전옥스나드한인장로교회(이종수 목사), 웨스트레이크한
인교회(오정택 목사), 리빙스톤교회(정준호 목사), 시미벨
리한인교회(변재근 목사), 시미벨리온헤이븐내셔널교회
(장승중 목사),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목사),
벤추라카운티장로교회(조인 목사), 옥스나드한인연합감
리교회(박민규 목사), 옥스나드한인교회(김진국 목사), 벤
추라감리교회(최상훈 목사), 열린문장로교회(김경욱 목사)

남가주 한인장로협의회

38대 회장
홍순현 장로
T. (213) 304-9191



31년 전통의
HEALTH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Made in USA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프로모션 A (12월 31일까지)

오리지널 6병+알파 2병
or 오리지널 8병
8병 (280불)

100불

프로모션 B (12월 31일까지)

오리지널 4병+
알파 3병 =
7병 (270불)

100불

프로모션 C (12월 31일까지)

오리지널 1병+
알파 5병 =
6병 (280불)

100불



알파
Kosher Approved Organic
8온스(226그램)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불/ea
+ tax

Kosher Approved
Organic/8온스(226그램)



50불/ea
+ tax

위산과 개선과
위산역류에 좋은
알파 구연산!

\$100 구매시마다 산삼 1뿌리 공짜선물!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보은사례 운동 안내

HQ구연산으로 모든 질병에서 많은 분들이 해방되고 있습니다. 값싸고 좋은 HQ구연산이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한 병을 구입하기에도 힘드신 우리들의 부모님과도 같은 분들께 매일 100병을 한 병씩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진심어린 마음에 동참해 주신다면 세상이 훈훈해 질 것입니다.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안,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땀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땀 뺀 것 같았다.
- ★ 손, 발바닥 무릎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음.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 사라져 버렸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과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다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올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로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심건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듦.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낫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질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심건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강력한
면역력·
자연치유력

연말연시 특별세일

타 업소보다
2-3배 싼
가격

연말연시 특별 세일

대	산삼 수형	뿌리당 무게	3차 파피 가격	가격/454g
중	1호-2호 Mixed (60년~120년근)	1호:23~35그램	\$1,700	\$1,200/LB
		2호:15~22그램	\$1,200	
		3호:9~14그램	\$1,100	
소	3호-4호 Mixed (20년~60년근)	4호:5~8그램	\$ 900	\$850/LB
		5호:1~5그램	\$ 600	

산삼 기획 상품 가격표

시행일: 2012년 11월 5일

가 격	무 게	뿌리 개수	산삼 수형	중전무게
\$600	270그램	약 30 뿌리	평균 30~50년근	200그램
\$200	110그램	약 20~30 뿌리	평균 20~30년근	90그램

\$200 산삼은 200그램부터 130그램, 110그램, 90그램 등 다양하게 종류가 있습니다.
생살일지라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으며 식품 검역소, 면세통관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선물 증정

산삼 200불 구입시마다 /2병
구연산 \$80(소매가 기준)
산삼 600불 구입시마다 /8병
구연산 \$280(소매가 기준)

\$ 30 \$ 50

항상 고객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번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서비스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느 때 보다 더 풍성하게 한 뿌리라도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구연산도 더 많이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꼭 챙겨가시고 더욱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연말을 맞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산삼도매 한인 최대 유통회사

미국 산삼 공인딜러
Permit Number 90-293202
300여명의 미국, 인디언 심마니 협력업체

NY, PA, VA, NC, WI 최상급 산삼 자생지에서만 채취해 옵니다. 채취시 흙이 묻어있는 그대로 들여와 싱싱하게 보존해 판매합니다. 씹거나 달이거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드시도록 복용법을 드립니다. 흥상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드리고 있지만 진짜 야생 산삼입니다.
※ 모든 제품은 조기에 품절될 수 있습니다.



~~70그램~~ 110그램 / 평균 10-30년근 30~40뿌리

\$200
소매가 \$1,000

~~200그램~~ 270그램 / 평균 40-50년근 30~40뿌리

\$600
소매가 \$3,000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폴 투르니에의 선물

폴 투르니에 | 새물결플러스 | 116쪽

선물을 주고 받는 행위는 사회적이고 관습적인 제스처에 앞서, 타인을 사랑하고 사랑 받으려는 욕구, 관계를 맺으려는 근원적 열망을 나타낸다. 이 책에서 기독교 상담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에는 붓 가는 대로 흘러가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선물이란 주제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펼쳐나간다.



하나님의 일곱 가지 질문

최형섭 | 예수전도단 | 244쪽

저자는 삶의 과정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마음을 '질문'이라는 키워드로 나눴다. 속사람의 변화 과정에서 겪는 삶의 문제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 뜻을 책 안에 고스란히 담아 놓았다. 자기 고백적인 이 글이 인생의 전환점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리라 확신한다.



어루만짐

김수안 | 생명의말씀사 | 224쪽

우리에게 어루만짐이 필요하다. 인생의 큰 시련뿐만 아니라 고단한 하루, 무거운 마음, 작은 슬픔 속 그 언제라도 누군가 나의 마음을 가만히 만져주기를 원하는 그 순간, 이 사진 한 장과 짧은 글이 당신을 만져줄 것이다. 일상 속에서 놓친 순간을 담아,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선물, 은혜

맥스 루케이도 | 아드폰테스 | 272쪽

자주 다뤘었고, 일상에서도 쉽게 접하는 단어다. 하지만 과연 은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을까. 그저 편안한 은혜에 안주한 것은 아닐까. 저자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은혜를 받아 변화되었는가? 성장했는가? 강해졌는가? 대범해졌는가? 은유해졌는가? 아니면 잡혀 꼼짝없이 순종했는가?"



REVIEW

“지금 읽는 책이 나의 미래다”... 삶을 바꾸는 실천 독서법

〈독서 천재가 된 흥대리〉 쓴 저자의 신간 〈읽어야 산다〉

“혹시 책 좋아하세요? 지금 무슨 책을 읽으세요?”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생각을 엿보거나 그의 가까운 친구들을 살펴보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나는 그 사람이 (중략) 무슨 책을 읽는지, 어떻게 읽는지 등이 가장 궁금하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이 읽는 책이 바로 그의 미래임을 알기 때문이다.”

베스트셀러 〈독서 천재가 된 흥대리〉의 (공동)저자 정희일이 〈읽어야 산다〉로 돌아왔다. 역대 빛, 대학 중퇴, 스테로이드 중독 등 절망으로 점철된 20대를 보낸 그가 베스트셀러 저자로, 강남 영어학원장으로 자수성가하게 된 비밀은 무엇일까.

저자는 절망 끝에서 인간됨을 다해 부여잡은 마지막 희망, 그것은 바로 책이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무심코 잡은 책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를 읽던 도중 마음

에서 변화의 조짐을 느꼈다.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왔지만 여전히 미래에 대한 희망, 의지라곤 찾아볼 수 없었던 그에게 책은 삶의 비전과 가능성을 가져다 주었다.

이후 그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2,000여 권을 독파하며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얻었으며, 성취감을 확인했다.

그렇지만 이력도 없이 보컬트레이너로 활동했고, 영어를 독학한 지 6개월 만에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해 지금은 서울 강남의 영어학원장으로 자수성가했으며, 집안의 빛을 청산했고, 멘토 이지성 작가와 함께 쓴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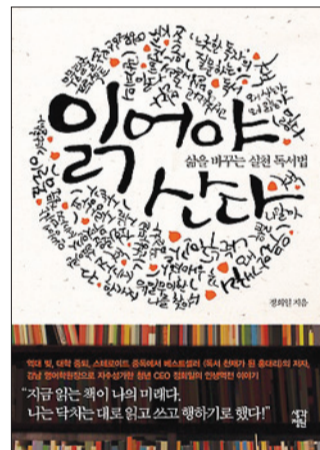
그는 독서 멘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책 읽기를 권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무슨’ 책이나를 강조하기보단, 책의 메시지를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실천을 통해 내·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읽고 느낀 바를 실천하지 않으면 책을 읽은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책대로 살지 않으면서 책을 읽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저자는 독서 멘토로서 책 읽기를 권할 때 가장 경계하는 것이 비평하는 책 읽기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도 변화에 실패하는 주요 원인이 “책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비평하고 폄하하기 때문”이라고 일침한다.

책의 메시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깨닫는 바가 있으면 습관이 될 때까지,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실천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성공적인 독서법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의 독서법을 공식화한 “THX 독서법”을 소개한다. 그는 이것을 ‘우물을 빠져나오는



읽어야 산다 | 정희일 | 생각정원 | 272쪽

책 읽기’, ‘내가 성장하는 책 읽기’라고도 말한다. 10분 이상 책을 5권 이상 읽어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T), 이어 전문화하기 위해 관심 가는 분야의 책을 10~20권 이상 깊이 읽으며 영역

을 넓혀간다(H).

그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과 지혜들은 별개로 분리된 채 있지 않고 서로 섞이면서 응용되는데(X), 여기까지 이르면 최고 수준의 창조적 책 읽기를 완성하는 것이다.

책은 또 저자에게 자아, 고난, 위로, 부자, 도전, 관계, 독서, 인생 여덟 가지 주제별로 삶에 영향을 미친 책을 소개한다.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지(知)의 시작임을 일깨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부터 열등감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게 이끈 〈지선아 사랑해〉, 편견에 맞서 흔들림 없이 도전할 의지를 북돋운 〈갈매기의 꿈〉, ‘사랑’의 위대함을 가르쳐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등 운명을 바꾼 2,000여 권 책 읽기의 결정적 승부수를 날랏이 공개한다. 이대웅 기자

아·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중앙일보/인터넷 웹사이트(www.koreadaily.com) [조인스아메리카 선정] "3년연속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비싼 집전화 요금! 몰랐다면! 이제 바꾸자!

행사기간: 2012년 12월 1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모르셨습니까? 아이토크비비는!

- ▶ 미국·한국 포함 27개국 무제한 통화
- ▶ 휴대폰에서도 국제전화 무료(매월 500분)
- ▶ 미국 전화번호·한국 070 번호 동시 제공
- ▶ 365일 한국어 서비스센터 운영
- ▶ 30일 환불보장 실시

또 다른 선택

최대 **0** + \$100
계약기간도 없다
개통비도 없다
크레딧 보상

딱 14일간 **6개월** 무료 혜택
글로벌 플랜, 글로벌 플러스 플랜에 한함 / 2년 계약

패밀리 알뜰 플랜

미국 최저가 **\$4.99/월**
▶ 수신 무제한
▶ 미국 로컬, 장거리 2센트
▶ 기존 전화번호 이전 가능

글로벌 플랜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24.99/월**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발신자번호 표시, 착신전환 기능 제공

글로벌 플러스 플랜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34.99/월**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한국 휴대전화까지 무제한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LA 직영점 (코리타운 갤러리아 304호) | 아이토크비비 213.559.7557 | 1.800.872.2902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아·이·토·크·비·비 iTalkBB [30일] 품질의 자신! **30일** 환불 보장! 사용해 보고 결정하세요!

*6개월 무료: 글로벌플러스플랜과 글로벌플러스플랜 2년 계약 가입자에 한해 계약 기간 만료 후 적용됩니다. **\$100 크레딧: 글로벌플러스플랜 가입자에 한해 \$100 크레딧을 드리며, 그 외 가입 플랜에 따라 해당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해당 크레딧은 13개월에 적용됩니다. 본 프로모션의 적용 지역은 iTalk Global Communications, Inc.에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 품질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발신할 때는 \$200 선납금(deposit)을 받습니다. 무료 부가서비스 마이그레이션과 글로벌플러스플랜 사용에 필요한 경우, 요금이 청구되거나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모션 및 이용규칙에는 Applicable Regulatory/Compliance Fees and Charges(가산요금, \$2.95/통화)가 별도 부과됩니다. 계약 기간 내의 서비스 중 일부는 일부 지역(50~55개)의 프로비전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 중 일부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의 일부 지역입니다.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s 등 미국 영토 영토의 통화는 무제한 통화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에 관해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Korea.iTalkBB.com)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800-872-29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프로모션의 적용 지역은 iTalk Global Communications, Inc.에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 품질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발신할 때는 \$200 선납금(deposit)을 받습니다. 무료 부가서비스 마이그레이션과 글로벌플러스플랜 사용에 필요한 경우, 요금이 청구되거나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모션 및 이용규칙에는 Applicable Regulatory/Compliance Fees and Charges(가산요금, \$2.95/통화)가 별도 부과됩니다. 계약 기간 내의 서비스 중 일부는 일부 지역(50~55개)의 프로비전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 중 일부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의 일부 지역입니다.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s 등 미국 영토 영토의 통화는 무제한 통화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에 관해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Korea.iTalkBB.com)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800-872-29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지원 문의 **1.800.875.8318**
365일 오전 6시~오후 10시30분(PT)

마음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는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심리학자의 말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경제지표, 주가지수, 물가지수 등등은 미래의 경제 동향을 예측합니다. 그 지표를 통해서 미래의 경제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시적 지표는 각 영역에 존재합니다.

푸른 잔디가 덮여 있는 공원을 거닐면서 어떤 사람은 행운을 가져온다는 네잎 클로버를 찾아냅니다. 잔디 사이에 부끄러운 듯 숨어있지만, 고운 자태를 뽐내는 예쁜 들꽃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똑같은 공원에서 어떤 사람은 냄새나는 오물만 찾아냅니다. 그리고 불쾌한 심정을 거칠게 표현합니다. 어찌 네잎 클로버나 예쁜 들꽃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자기를 드러내 보이겠습니까? 어찌 냄새나는 오물이 특정한 사람의 발 밑으로만 기어 들어가겠습니까? 이는 그 사람의 마음에 네잎 클로버를, 예쁜 들꽃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였기에 네잎 클로버와 예쁜 들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불평과 불만을 품으면 그에 해당되는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사방에 널려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대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아닌 상대편의 마음을 관찰하는 작업을 통해서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면 상대하는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상대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긍정적 사고, 적극적인 용기, 창조적 생각들이 가득 차 있게 되면 그의 미래는 바로 그가 품은 생각대로 이뤄지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염려, 근심, 걱정, 부정적 사고, 배타적 생각, 불신 등과 같은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자의 미래 또한 그대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결정됩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마음과 더불어 희망있는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지금부터 8년 전인 2005년 한국의 김위찬 교수는 프랑스의 르네 마보안 교수와 함께 ‘블루오션 전략’이란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김위찬 교수는 기업이 새롭게 눈을 돌려야 할 전략이 바로 블루오션이라고 역설한다.

블루오션이란 새로운 시장을 말한다. 이전까지는 모든 기업이 남이 이루어 놓은 기존 시장 곧 레드오션에 뛰어 들어 경쟁하여 살아남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살 깎아 먹는 가격 경쟁같은 출

영적 블루오션

혈만 남을 뿐이다. 이제는 새로운 시장에 눈을 떠야 한다.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해야 하고, 남들이 개발하지 않은 상품을 개발하며, 남이 뛰어들지 않은 분야에 뛰어 들어야 한다. 기존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객, 곧 미고객을 고객으로 만드는 것이다.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블루오션 전략을 짜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이나 기준과 경쟁하는 자들이 아니다.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쾌락이나 삶의 유익을 더 나은 조건으로 채워주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에게 없는 새로운 가치와 기준으로 다가가는 자들이다. 저들이 한번도 누려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을 소개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영적 블루오션 전략이다.

이 영적 블루오션의 선구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영적 블루오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한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철저한 블루오션 전략가였다. 영적 블루오션은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생각하는 자에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전략이다. 복음의 역사가 세상적인 시장경쟁의 원리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가장한 인간 탐욕의 현장일 뿐이다.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기존 시장에 뛰어들어 기존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세상의 레드오션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가 사는 길은 영적 블루오션에 뛰어어드는 것이다. 새로운 영적인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새로운 복음의 대상자들을 찾아가야 한다.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으면 분열하게 되어 있다. 유대 땅으로 나아가야 하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분명 이런 블루오션 전략을 기뻐하시며 이것이 교회의 사명 아니겠는가?

시카고 멘토링 세미나를 마치며



손인식 목사
베델한인교회

곤한 내색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세미나의 초점은 목회 현장에서 갖가지 상황들을 겪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이민목회의 35년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는 선배로서, 멘토의 역할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미나에서 다루는 4가지 주제 “치열한 리더십”, “목회의 창조적 아이디어”, “회중을 파고드는 설교”,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태도” 등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세미나에서 제가 매번 놀라는 것은, “어쩌면 도시마다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문제들이 이렇게도 똑같으며 어쩌면 교회들을 공격하는 사단, 마귀의 수법이 이렇게도 똑같은가”입니다.

뉴욕의 어느 목사님은 청빙할 때 제일 먼저 찾아왔던 사람이 거의 틀림없이 목사를 쫓아내는 사람이 된다는 “속살”을 받을 수 없었는데 자기가 그대로 겪었노라고 하는 탄식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미시간에서

도, 산호세에서도, 여기 시카고에서도 목회자들의 똑같은 체험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굳이 기회를 간청하는 사람이 있어 그를 부목사로 데려 왔더니 처음에만 열심이고 그 후에는 이단적 교리를 퍼뜨려 지난 10년간 쌓아온 성장과 축복이 사라졌다는 아픈 사연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도시들인데, 인간은 다 병들었고 목회자들끼리도 신뢰할 수가 없는 정말 광야 같은 목회 현장들입니다. 그러나 신비한 것은, 이번 시카고에서도 그러했듯이 단 한 분도 목회를 그만두겠다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목회는 소명이고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양무리들이 참된 목자를 더 갈망합니다. 목자들의 모성애적 목양의 품을 더욱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나누고, 배우고, 울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이번 시카고 멘토링 세미나였습니다. 할렐루야!

김인호 CPA
562-467-1114
cerritioscpa@gmail.com
Cerritos Accountancy Corporation
17215 Studebaker Road #150
Cerritos, CA 90703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State Filing)
비영리 허가취득(IRS, FTB)
By-Laws, Minutes, Mission Statements
교회 재정보고서(Financial Statements) 작성
교회 재정 및 행정 Internal Control 상담
교회 재정 소프트웨어 Quickbook, PowerChurch 설치 교육
교역자 및 직원 세무상담
Payroll Services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213) 402 - 513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웨이스 기독교대학교 · 신학대학원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hristian College(Tampa, FL)

통신생 대모집

online

2012년 가을 학기 신입 편입생 모집 **가을학기** · Th.D · Ph.D학위 7명, · M.Div학위 7명 \$10000,00 장학금지급

본교의 특전 및 소개 **전 세계 50개주가 인정하는 정규학위 수여 (Academic Degree)**

- 본교는 신구약 성경의 정확무오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성경중심의 보수주의 개혁신학을 교육하는 대학으로 유명 정규학위(아카데미 디그리)를 수여하는 신학대학원입니다.
- 본교는 미국남부 플로리다주 주정부 교육청에 등록(NO 246083)된 신학대학원입니다.

정규 학위 인준 기관

특전:

- *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 * AMFED (American Federation Christian College Schools)
- * CIE (Commission of Independent Education)
- * SAABC (Southern Association of Bible College)의 정회원에게 가입되어 미국 어디서나 학점을 인정받고 타신학교와 학점교류도 가능합니다.
- * 장학금 혜택은 전학생 (50%)

- 편입학생 및 신입생 접수(타신학교 학점인정) **수시접수**
- 졸업후 미국교단과 한국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명문 유명학교와 학점교류
- 통신강의 (아카데미 학위취득)**
 - ① Dallas Theological Seminary
 - ② Indian University
 - ③ Lee University
 - ④ Liberty University
 - ⑤ Oral Roberts University
 - ⑥ Regent University

학생모집(학위과정, 학점, 자격, 논문)

On-campus	Intensive and Distance Special Education Program			
학위	학과	학점	자격	특채
대학부 Bachelor 50% 장학금지급	신학사-신학(B, TH)	128	고졸 이상자	통신생 전공 최상의 장학금지급
	교육학(B.C.E)	128		
	목회학(B.P.M)	128		
대학원 Master 50% 장학금지급	목회학석사(M.Div)	96	신학대학 및 일반대학 졸업자	
	신학석사(Th.M)	96		
	교육학석사(M.C.E)	96		
박사과정 Doctor Degree 50% 장학금지급	상담학석사(M.C.C)	96	석사학위이상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목회학박사(D.Min)	32		
	신학박사(Th.D)	64		
	교육학박사(D.C.E)	64		
	상담학박사(D.C.C)	64		
신학 Ph.D 상담학 Ph.D	신학 Ph.D	48	신학박사·상담학박사 소지자	
	상담학 Ph.D	48		

제 1 캠퍼스: 3251 W. 6th St., #101, L.A, CA 90020

협력학교 **학장 : 양병삼 목사 Th.D**

제 2 캠퍼스: 6882 Selma Ave., Hollywood, CA 90028

(213) 503-5330 **수시접수**

유동근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3)

6-7절,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유동근 목사
한국 온누리선교교회

세례 요한에 대한 간단한 서술이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 오시기 바로 직전의 선지자로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한 자이다. 선지자 중 가장 큰 자라고 볼 수 있다. 구약의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는 멀리서 예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와 동시대에 태어나서 그분을 보며 예수를 천거하는 사역을 한 것이다. 그는 메시아(예수)에 앞서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이다. 그는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된 자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말은 모든 사역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말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위하여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일을 하신다. 요한의 사역은 그의 전파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데 있다.

분은 이 요한복음이란 책에서 역사상 한 번 창조주가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란 예수의 성육신 후부터 승천까지 주 예수께서 33년 간 세상에 계셨음을 말하는 것이다.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가 창조자이심을 증거한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도되” 하나님은 마지막 선지자 요한까지 보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주 예수는 자기가 지은 신 세상에 오셨지만 특별히 이스라엘(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12-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12절은 그러나(but)로 시작한다.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지 알지도 아니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but)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말한다. 신약에는 믿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믿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12절에서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예수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다. 마음을 열고 그분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며 영접하면 된다.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생명인 하나님을 먹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어졌다(창2:9, 생명의 나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하는 존재임을 말해준다). 예수는 생명나무의 열매로 오신 분이므로 사람이 그분을 먹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영접할 수 있다.

13절에는 ‘나는’ 문제를 말한다. 여기서 ‘난’은 태어난다(born)는 말이다. 그리스도인은 뭔가를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된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원래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인간의 생명을 얻었다. 그것이 한 번 태어난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사람은 반드시 거

듭나야 한다고 말한다.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누구로부터인가? 하나님으로부터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인 분이시다.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백성들은 그가 누구지도 모르고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려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된다. 그때 우리 속에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께서 들어오신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고 예수 안에 있던 생명을 얻어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태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수도하는 것으로 잘못 안다. 하지만 원숭이가 아무리 도를 닦아도 사람처럼 되지 않는다. 예수 믿는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10년, 20년을 믿어도 똑같은 이유는 생명이 안 바뀌어서 그렇다. 거듭나지 않은 것이다. 원숭이에게 예배드리는 것,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계속 훈련시켜도 돌아서면 다시 바나나를 먹고 나무에 올라가듯 그렇게 되돌아가게 된다. 생명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조금만 크면 원숭이 짓을 하지 않는다. 생명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자녀의 권세는 큰 것이다. 첫째는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을 받는다.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그분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게 된다. 셋째는 우리가 당당히 아버지께 요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육신적으로 유전되지 않는다. 이것이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버지가 믿었다고 아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 또한 사람이 의도한다고 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다. 강압으로도 안되고 사정해서도 안된다. 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당뇨 · 고혈압 난치병 물렸거라 침+한약+음식으로 치료 및 완화

각종 할인 혜택으로 이웃 섬기기 열심



김철 한의사

경기 불황인 데다 날씨까지 추워지는 요즘 남가주 한인들에게 섬김의 의술을 펼치는 이가 있다. 그 주인공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청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철 한의사. 이 한의원에서는 80% 할인해 침을 놓아주고 있고, 주 치료 프로그램 중 하나인 당뇨, 고혈압 프로그램을 60% 할인된 가격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가든그로브 진료실에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의료 봉사를 펼쳐 수차례 방송에도 출연한 김철 한의사는 “연말인데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건네고 싶다”고 밝혔다.

청한의원은 당뇨, 고혈압 환자들이 특히 많이 찾는다. 이 환자들은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데 이곳에서 처방을 받아 3-4개월 동안 침을 맞고 한약을 먹으면 약을 끊거나 줄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완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병세를 많이 호전시키고 병의 수치를 정상화시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알 수 없는 월경통,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불임증, 갱년기 장애, 위장병, 피부질환, 알라지, 해수천식, 어지럼증, 남성전립선, 관절통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진료 대상이다.

또한 특수침술을 행하고 있는데, 침을 놓으면 5분도 안돼서 오래된 통증이 사라진다. 비록 완치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가 병세를 이야기하기도 전에 어디가 아픈지 의사가 미리 알려 줄 정도다. 이 진단법은 손목의 맥을 잡아 오장육부의 허실을 간파하는 것으로, 한약과 침으로 균형을 맞춰주고 음식 보충법으로 치료를 돕는다.

김 한의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그 원인을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화학적인 약을 통해 증상을 치료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평생 약을 달고 사는데 이는 이상적이지 않다. 젊을 때는 모든 신체 기능이 좋고 건강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장부기능이 떨어진다. 증상적으로 볼 때 피곤하거나 몸이 추운 것은 장기가 약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로부터 진찰을 받고 침을

맞은 환자 A 씨는 “병원에서 많은 검사를 해 봤는데도 호전되지 않아 이 한의원을 찾았는데, 침을 맞은 지 2분 만에 증상이 사라졌어요. 언제 아팠나 싶을 정도로 많이 회복됐죠”라고 말했다.

또 환자 J 씨도 체험을 고백했다. “제가 전혀 무릎을 꿇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침을 맞고 나서 (무릎이) 꿇어져요. 마술을 쓴 것도 아닌데 말이죠.” 환자 B 씨 또한 “한약을 복용하고 2개월 만에 당뇨약을 끊었다”고 말한다.

김 한의사에 따르면, 결혼한지 2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아 슬픔 속에 있었던 한 자매는 한약을 먹고 한달 만에 임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그는 “특수한약은 놀라운 정도로 몸의 균형을 맞춰주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 현재의 약한 증상을 보강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의 나쁜 질병을 예방시켜 우리 몸이 살아 숨쉬도록 하는 놀라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학을 공부한 후, 김 한의사는 수년에 걸쳐 한방 고서, 중국책(중의) 수천권을 독파하며 연구를 거듭해 현재의 명성을 얻게 됐다.

“저는 한약과 침술 외에도 체질에 맞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상담해 줍니다.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관리·조절해주는 한의원입니다.”

주소: 3003 W. Olympic Blvd. #201 Los Angeles, CA90006(LA점)
9355 Chapman Ave. #108 Garden Grove, CA92841(가든그로브점)
문의: 213-385-5833, 714-636-1412

토마스 맹 기자

당뇨, 고혈압, 고지혈, 부인병 및 힘든 질병에서 빠르게 증상 개선시키는 청 한의원

대단히 놀랍고도 배바른 효능의 특수침술, 특수진맥

이번주 강의: 당뇨, 고혈압의 합병증에서 빠르게 대처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심각하고도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피순환이 안 좋아져 무섭게 망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나이가 40살 정도인데 당뇨가 생긴지 2년정도인데도 눈이 안보여서 본원에서 치료 3개월 후 눈이 어느정도 보이게 됐고, 당뇨 수치가 어느정도 잡혀서 안도의 숨을 쉬지만 당뇨 합병증은 생각보다 무척 힘들고 그 고통은 상상하기 힘들습니다. 본원에서는 자연의 요법으로 약에서 어느정도 벗어나서 수치가 어느정도 정상에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당뇨, 고혈압은 평생토록 관리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완치는 안되지만 약에서 어느정도 벗어나야 그리고 줄여서 합병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본 한의원에서는 특수진맥과 특수침술을 통해서 오래된 통증을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수 분 정도에도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약해진 장기의 균형을 도와주어 합병증 및 통증에서 벗어나게끔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게 도와드립니다. 올바른 가르침, 준비된 생활로 건강도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초기에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에만 의존하다 보니 안 보이거나 심장투석, 다리절단과사, 심장병, 뇌경색 중풍 치매등으로 고생하다 무척 힘들게 되는데 어느 정도 약을 줄이거나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은 빠른 증상개선으로는 좋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혈관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몸의 중요장기인 뇌, 눈, 심장, 신장 및 손, 발등 중요한 부분의 상상으로 이해가 안간다고 너무나 감사해 했었습니다.

청 한의원의 상상하기도 현실의 세계에서 믿기 어려운 빠른 효과의 특수침술은 과연 무엇인가...

예) 70대 바라보는 LA 인근에 사시는 김 선생은 허리통증으로 너무나 아파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본원에 와서 침을 맞은지 불과 2-3분도 채 안되어 그 즉시 그 괴로운 통증이 사라진다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신기하다.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친구에게 그 상황을 얘기한즉 아무도 믿기 어렵다고 말한즉 3주가 지난 이후에도 통증이 없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해하는 모습이었다.

예) 60대 후반의 여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배 부위의 통증으로 무수 큰 병이 아닌가 걱정하면서 내원한 바 침 시술 후 3분도 안되어 그 통증이 사라지고 없어졌으니 남편도 지켜보면서 정말 눈으로 보면서 믿기가 힘들고 상상으로 이해가 안간다고 너무나 감사해 했었습니다.

예) 50대 남성으로 오렌지카운티에 사는 강 선생은 오심경으로 팔을 들거나 움직일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했고 한6개월 정도 고생으로 여러 병법치료를 다 했으나 계속 아파서 본원에 와서 치료후 5분도 안되어 그 통증이 사라지고 자유자재로 그 즉시 움직이니 현실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믿기지 않아 했고 정말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의 임상사례는 개개인 증상, 병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통증이 사라졌다해도 다시 올 수 있으며 통증이 사라진 것이 완치된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계속적 치료요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 고혈압은 완치가 없으며 평생동안 관리조절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예) 70대 할머니 엉덩이부터 땀이 났고 발끝까지 아파서 좌골신경통 및 알 수 없는 통증으로 2년이상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다 정말 남들이 2-3분 정도 후에 통증이 사라진다는 말을 듣고 그냥 방문 그런데 5분도 안되어 그 오래된 통증이 사라진다 이것은 상상으로 정말 이해가 안간다고 감탄하시며 뒤돌아 가면서 감사해하는 모습이었다.

예) 젊은 학생이 6개월 정도 전에 다리를 다쳐서 심하게 아파서 병대를 잡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온갖치료를 했으나 큰 진전이 없어 통증을 호소하는바 침을 놓은지 5분도 안 되어 그 통증이 사라지고 자유자재로 무릎을 움직이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있나 말하면서 Amazing이란 말을 계속 연거푸 말하고 있었다.

Coupon 60% off 12/31/12 까지
당뇨, 고혈압, 고지혈, 복부비만 프로그램

특별 절호의 기회! 놀라운 당뇨 신선단2병 사면 1병 FREE 당뇨병의 희소식!!

왜 당뇨신선단이 좋은가?



더 자세한 사항은 www.shinsundan.com을 참조
24시간 주문전화 714.636.1412



HEALTH & LIFE

또 진통제 몇 알로 두통을?

“만성두통! 원인을 잡아라”



우리가 가장 흔하게 겪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두통이며, 두통이란 모두가 알고 있듯 머리에 통증이 있는 것을 말한다.

통증이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신체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이상을 전달하는 경고반응이라 할 수 있는데, 통증 자체가 질병인 것은 아니므로 통증만 제거한다고 통증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다.

즉 두통이 심하여 진통제를 복용해서 머리 아픈 증상이 사라졌다 해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것일 뿐 근본적인 두통의 원인은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이다.

잡은 두통이 있을 경우 두통약의 효과가 떨어지고, 다시 머리가 아프면 또 다시 진통제에 의존하여 상황을 넘겨려 하겠지만 이런 악물 의존이 반복되면 약효도 점점 떨어지고 만성 두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만성 두통은 중풍이나 뇌

졸중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기에 근원적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만약 자신에게 아래와 같은 증상의 두통이 반복된다면 전문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하겠다.

▷항상 두통이 일정 부위에 나타난다.

▷두통이 갑작스럽게 발생했고, 그 통증이 심하다.

▷두통 발생 횟수가 평소보다 많아진다.

▷두통과 함께 어지럼증, 안구통증, 기억력·집중력이 떨어진다.

▷두통 외에 파킨슨병 증세(팔다리 감각 이상, 좁은 보폭, 손발이 뻣뻣해지고 평형기능 감퇴, 발음 부정확 등)가 나타난다.

▷과거 명해지거나(이명) 잘 들리지 않는다.

▷어지럼증이나 만성피로가 동반된다.

▷뒷목이 항상 뻣뻣하고 어깨결림이 자주 있고 안구건조증과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거나 저림 증상을 동반한다.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두통.

두통의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계속

재발되는 경우 전문 진료를 하는 병의원을 찾아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각종 장비를 동원해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도 많다.

만성 두통 환자들은 진통제를 복용해도 효과는 그때 뿐, 통증이 잘 사라지지 않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며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또 집중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을 호소하기도 하며, 신경이 예민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으로 힘들어 한다. 심한 경우 대인기피증, 우울증 같은 정서 장애를 동반하여 간혹 메스꺼움을 느끼거나 얼굴이 검어지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만성 두통의 경우 검사할 때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방치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경산한의과병원 류재규 원장은 “각종 정밀검사에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만성 두통의 원인을 한방에서는 어혈, 즉 머릿속의 탁한 피나 노폐물이 뇌

혈액순환의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이라 본다”며 “스트레스나 위장 장애, 간기능 및 심장기능 이상, 교통사고 후유증, 일자목 증후군 등 다양한 원인이 잘 순환되던 체내의 체액을 응어리지거나 멍치게 만들고 이것이 경락이나 혈행을 막아 만성두통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뇌 혈액순환 장애를 오래 방치할 경우 스트레스, 위장장애 등 두통 원인을 더욱 심하게 만들어, 다시 두통이 찾아지고 심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심한 경우 뇌졸중, 중풍 같은 치명적 질환의 위험도 높이므로 반드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류 원장은 “만성두통은 먼저 머릿속에서 응어리진 어혈을 풀어 통증을 감소시키고, 이후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바로잡아 재발을 예방하는 치료가 필요하다”며 “어혈을 풀어주는 치료는 체내의 열과 탁해진 혈액을 풀어주는 강황, 황금 등 약재를 이용한 약약제

방이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류 원장은 “이는 머릿속의 찌꺼기와 탁한 피를 녹여 체내로 배출해 주고, 임상적으로도 1-3개월 이내에 80% 이상의 통증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파킨슨병 증세가 있는 환자들도 뇌에 충분한 혈액과 산소를 공급해 주고 체내 기혈순환을 원활히 해 주고, 간의 기능을 좋게 하고 양기를 보충하면 다른 사람이 증세를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좋아질 수 있다”고 했다.

어혈 치료를 통해 통증이 감소되었다면 어혈의 원인이었던 신체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스트레스, 위장장애 등 신체 불균형을 바로잡아야만 두통 재발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평소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가벼운 산책과 운동은 두통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카페인이나 기름진 음식, 치즈, 초콜릿 등은 피하고, 신선한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니 참고하도록 하자.



과민성방광 수족다한증 동반하는 경우 다

긴장하면 손발에 땀 많이 나고 소변도 마려워

방광이 약해져서 발생하는 과민성 방광,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요실금 처럼 새기도 하고 수면 중에 자주 깨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배뇨질환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민성방광 환자 중에는 손발에 땀이 많이 나는 수족다한증을 함께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생각하면 과민성방광은 배뇨질환이고 수족다한증은 이와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두 질환은 모두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스트레스 및 긴장과의 관련이 있고, 한의학적 원인에도 공통점이 있다.

현대의학에서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민성방광과 수족다한증은 모두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쉽게 말해 과민성방광은 소변이 과하게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 질환이고 수족다한증은 땀이 과하게 나서 목재인 질환인데, 방광에서 소변을 저장했다가 배출하는 것과 우리 몸이 땀을 분비하는 것은 모두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질환에 대한 약물치료

요법으로 자율신경의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차단하여 땀분비와 방광수축을 억제하는 항콜린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항콜린제는 땀샘이나 방광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는 위산분비나 침, 눈물 등 전신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입마름이나 안구건조, 변비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수족다한증 치료를 위해 약물요법에 의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톡스나 교감신경절제술과 같은 간단한 시술이 훨씬 효과가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민성방광은 1차적으로 약물요법을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정부분 부작용을 감내해야 한다.

과민성방광과 수족다한증은 모두 긴장 및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깊다. 건강한 사람도 가끔 공포영화를 볼 때 손에 땀이 흥건해지거나 시험 시간만 되면 긴장되어 소변이 마려워지기도 한다. 그런데 긴장이나 스트레스에 유독 취약하거나 최근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면 과민성방광이나 수족다한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한의학에서도 수족다한증과 과민성방광을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의 범주로 본다.

인애한의원 강남점 정소영 원장은 “신체는 물(水)과 불(火)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어야 건강한데 스트레스로 인해 기운이 울체되어 우리 몸에 화(火)가 생기면 화(火)에 물(水)이 쫓겨나서 소변이 급하게 많이 나오고, 땀분비도 증가한다. 이처럼 땀과 소변으로 체액이 자주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 몸에 물(水)은 더욱 부족해지고 불(火)은 커져 수족다한증이나 과민성방광이 발병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족다한증을 동반하는 과민성방광은 위기(衛氣)가 약해진 것이 원인이기도 하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위기(衛氣)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기운으로 몸 안의 기운이 밖으로 새는 것도 막아주고 외부의 나쁜 기운이 우리 몸에 침범하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위기가 약해지면 기운이 새고 심하면 땀과 소변이 같이 새어 나와 수족다한증과 과민성방광이 발병할 수 있다.

오유진 기자

[건강 칼럼]

꼭꼭 씹어 먹자!

현대인들의 식습관은 과거 50년 전에 비하면 양과 질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다. 그리고 음식 자체뿐만 아니라 생활패턴에 따른 변화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기아상태에서 허덕임을 해방시켰고,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게 했으며,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하는 등 발전적인 면이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의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다.

그 중에서 빨라지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생활로 인해 생긴 잘못된 식습관, 꼭꼭 씹어 먹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어릴 적부터 어른들은 밥 먹을 때 항상 잔소리를 하셨다. “꼭꼭 씹어 먹어라.” 그 한 마디를 듣고 꼭꼭 씹는 흉내라도 내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그 단순한 한 마디가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밥 먹을 때마다 들어도 모자랄 정도로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른다.

첫째, 소화작용을 돕는다. 음식이 들어가는 첫 관문은 입 안이다. 입 안에서 치아의 저작운동과 혀가 씹는 작용을 통해 침분비가 이루어져 소화기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둘째, 치아를 튼튼하게 한다. 치아의 건강은 오복의 하나로 정말 중요하다. 꼭꼭 씹어먹음으로써 치아 자체도 튼튼해지고, 치아를 받치고 있는 치주조직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셋째, 머리가 맑아진다. 옛날 노인

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꼭 하는 행위 중 하나가 고치(叩齒)라고 해서 어금니를 딱딱 소리를 내면서 여러 차례 부딪치는 것이었다. 이 행위를 통해서 머리를 맑게 한다고 한다. 즉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자주 부딪치고, 분비되는 침을 삼키는 방법이 좋다는 것이다. 나쁜한 오후에도 가끔 이를 부딪쳐주면 머리가 맑아진다. 이 때 나오는 침은 반드시 삼키도록 한다.

넷째, 경추가 튼튼해진다. 어금니 주변에 있는 저작근육은 턱관절(TMJ)과 연결되어 있다. 이 관절은 몸의 균형을 지배하는 관절로, 그 영향을 받아 경추가 정렬된다. 즉 턱관절이 균형을 못 잡으면 경추가 비뚤어지고, 이에 따라서 골반과 척추 역시 비뚤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턱관절을 충분히 단련시켜 놓으면 경추도 따라서 튼튼해진다. 하지만 오징어 같은 딱딱한 것을 많이 씹는 등 과도한 단련은 오히려 턱관절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오래 씹어 먹음으로써 기분 좋게 식사를 할 수 있다. 시간에 쫓기거나, TV를 시청하는 등 대충 씹어 먹는 환경을 없애자.

위에 열거한 사항 외에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양기를 돌게 하지 못하면서 변비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습관이다.

하랑한의원 박용환 원장

WIN HYUNDAI at El Monte

<p>SANTA FE SE AWD 2012</p> <p>Lease \$259 per month+tax</p> <p><small>36 month closed end lease, 12k miles per year and 20cents a mile in excess on approved above average credit. Excludes Tax, title and registration fees, \$0 security deposit, \$2,995 Cash out Pocket + \$1,000 Competitive + \$2,000 Other Rebates = \$4,995 Total Drive off</small></p>	<p>ELANTRA GLS 2013</p> <p>Lease \$79 per month+tax</p> <p><small>36 month closed end lease, 12k miles per year and 20cents a mile in excess on approved above average credit. Excludes Tax, title and registration fees, \$0 security deposit, \$2,995 Cash out Pocket = \$2,995 Total Drive off</small></p>	<p>SONATA GLS 2013</p> <p>Lease \$89 per month+tax</p> <p><small>36 month closed end lease, 12k miles per year and 20cents a mile in excess on approved above average credit. Excludes Tax, title and registration fees, \$0 security deposit, \$2,995 Cash out Pocket + \$500 Competitive + \$1,500 Other Rebates = \$4,995 Total Drive off</small></p>	<p>VERACRUZ Limited 2012</p> <p>Lease \$259 per month+tax</p> <p><small>36 month closed end lease, 12k miles per year and 20cents a mile in excess on approved above average credit. Excludes Tax, title and registration fees, \$0 security deposit, \$3,995 Cash out Pocket + \$1,500 Competitive + \$1,500 Other Rebates = \$6,995 Total Drive off</small></p>		
<p>한인담당 Alex Shin</p> <p>www.winhyundai.com</p> <p>El Monte</p>		<p>■ 믿음있는 세일즈맨 alex shin이 도와드리겠습니다.</p> <p>■ no credit, bad credit, 유학생 환영</p> <p>■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현대딜러</p> <p>■ 최고의 가격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p>		<p>*Special APR based on 36 month financing. Based on above average credit, must finance with HMF to qualify.</p> <p>HYUNDAI Assurance</p> <p>America's Best Warranty</p> <p>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p> <p>3462 N. Peck Road, El Monte, CA 91731</p>	



버섯으로 식탁을 정복하라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기분 꿀꿀할 땐 매콤한 버섯 제육볶음

쌀쌀한 날씨다. 뭔가 얼큰한 것이 먹고 싶은가. 매콤하게 제육볶음 요리를 만들어 상추에 싸 먹어보라. 특별한 반찬이 없어도 속이 든든할테니. 얼큰한 매운 맛이 당긴다면 고추장과 후추의 양을 늘리거나 청양고추를 잘게 썰어 넣어 먹으면 포만감

과 행복감이 물씬 밀려든다.

맛있는 재료

돼지고기 1/2파운드, 느타리버섯 100g, 팽이버섯 50g, 새송이버섯 50g, 양파 50g, 당근 20g, 깻잎 5장, 대파 1/3대

양념 재료

다진 마늘 1큰술, 고추장 2큰술, 설탕 1큰술, 식용유 1큰술, 후추 약간, 생강즙 1작은술, 참기름과 참깨 필요량

만들기

1.믹싱볼에 분량의 마늘, 고추장, 설탕, 식용유, 후추, 생강즙, 참기름, 참깨를 넣고 양념장을 완성한다. 2.돼지고기는 불고기감으로 준비를 하여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놓는다. 3.당근과 양파는 손질해서 채를 썰어 놓고 대파는 어슷썰기하고, 깻잎

은 굵게 채썰기를 한다. 4.버섯은 깨끗이 손질하여 소금물에 절여 놓았다가 물기를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 놓는다. 5.달구어진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 양념한 돼지고기를 넣고 볶는다. 미리 준비해 놓은 야채와 버섯을 넣고 볶은 후 완성한다.

맛과 건강을 동시에... 버섯 햄버거 스테이크



맛있는 재료

두부 Tofu 반 모
같은 소고기 Beef 1/2 파운드
다진 양파 Onion 반 개
다진 양송이버섯 Mushroom ... 1/2컵
빵가루 Bread Crumb 2큰술
밀가루 Flour 1큰술
파마산치즈 Parmesan 2큰술
소금과 후추 Salt & Pepper 약간

소스 재료

토마토 주스 1컵, 간장 2작은술, 메이플시럽 1작은술, 발사믹 식초 1작은술, 물엿 1작은술, 소금 약간, 만가닥버섯(Maitake) 한봉

스테이크와 소스 만들기

1.분량의 양파와 양송이는 다듬어서 잘게 다진다. 2.소고기는 마트에서 다진 고기를 준비해 오거나 덩어리 고기를 잘게

다져 준비한다. 3.다진 고기에 다져 놓은 양파와 양송이, 두부를 믹싱볼에 담아 섞은 후 분량의 밀가루와 소금, 후추로 밀간을 하여 잘 섞는다. 이때 밀가루와 고기가 뭉치지 않도록 잘 풀면서 골고루 섞어 주어야 한다. 4.반죽이 너무 되다 싶으면 우유를 넣고 묽으면 빵가루를 넣어 반죽하면 된다. 5.만들어진 반죽은 예쁘게 둥근 모양을 만들어 냉장고에 한시간 정도 냉장시킨다. 6.달구어진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만들어 놓은 버거의 한쪽 면을 익히고 뒤집어 다른 면을 익힐 때는 뚜껑을 덮어 속까지 잘 익히는 것이 요령이다. 7.팬에 분량의 소스재료를 넣고 맛을 보면서 기호에 맞게 소스를 만든다. 8.햄버거 소스를 만들 때 어느 정도 소스가 끓으면 손질해 놓은 만

가닥버섯을 한소끔 떠 넣고 좀더 끓여 완성한다. 9.구운 햄버거 위에 만들어 놓은 소스를 끼얹고 옆에 본인이 좋아하는 야채를 놓아 완성한다. 고기 반죽은 오래 치대수록 잘 못 쳐진다. 햄버거 스테이크 소스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만 데미그라스 소스를 얹어 먹어도 좋고 데리야키 소스를 얹어 먹어도 좋다. 자기 취향에 따르면 된다. 소고기만으로 만들면 너무 뻑뻑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두부를 넣고 만들어도 좋으며 돼지고기를 섞어서 사용해도 좋다. 햄버거 스테이크를 만들 때 밀가루를 넣는 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단,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떨어지니 주의할 것. >글·사진=요리연구가 미셀 조 >쿠కి클래스 문의: (562) 896-3090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Excel Legal Center(엑셀법률센터)

- ✓ 영주권, 시민권 신청
- ✓ 주식회사,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
- ✓ 혼인이혼, E2 투자
- ✓ 민사, 퇴거(Eviction), 파산
- ✓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 ✓ 소액재판(small court claim)

☎ 213-365-6622 (67+) 사무소: 새뮤얼 리버랜드 대학 옆 한식빌딩

520 S. La Fayette park pl. #501 Los Angeles CA 90057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상점 및 그리자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편리함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빙베어 농축 흑염소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하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흑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K7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번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에 의한 피해 재산, 부동산, 손실분쟁
 입주자분쟁(소송/방어서류)
접근금지 명령/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급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 **형법** 정부상대 문제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식당 의자 천갈이 노래방



지압다이



교회장의자



식당부스

오랜 기술과 신용으로 영업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업용/가정용 가구수리

스파 714)222-9792 562)943-7101 교회

16513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3

골드핑거 양복점

직접재단 직접재봉

삼성이 만든 명품 양복지 골든텍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양복점에서 수제양복을 입어보세요. 귀하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10% 할인

✓ 브레이크

✓ 튜닝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사업체 펀딩

Goodnews Business Fund Inc.

\$10,000 당 \$ 575 x 20 주 = \$11,500.

Processing Fee \$500.

간단한 서류, 신속한 결과!

TEL (323) 334-6533

동산한의원 3주주년

50%할인

당뇨/파킨슨/호흡기/알러지
피부병/ 불임증/ 난치병

세명의 한의사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홈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걱정, 이제 그만!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제작해드립니다.

\$499

제작문의 213.587.3498

유익중한의원

Yoo Ik Jong Herbs & Acupuncture Clinic

- * 교통사고
- * 즉시 효과보는 침
- * 생활개선을 위한 치료

원장 유익중
Yoo, Ik Jong L.A.C., O.M.D.

323)735-0252

1045 S. Western Ave. #C
Los Angeles, CA 90006

이민희 한의원

특진: 만성 피로 증후군

각종 보험 및 교통사고
Easy Choice 지정 한방병원

(213) 385-6688

3000 W. Olympic Blvd, Ste. 303 LA, CA 90006
(올림픽과 놀만디 신한은행 3층)

www.omdoctor.com LEE, MIN HEE O.M.D., L.Ac.

이중창문교체전문

Value Windows & Doors

특별세일

햇빛차단 Low-E3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동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스마트 월드

www.GoSmartworld.com
건강·용품·전문점!

FUJIT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원래 인기 건강 팔찌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음이온 살리핀! 자동차 핸들 커버
\$3000 (정액) 음이온-양극이온-발광

출몰 운전 때문에 교통 받는분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분
손가락 관절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분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3,900 (정액)

로테오
캘러리아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식재료 도 · 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찹쌀,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외,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www.myopenbank.com



이 아이에게
물려 주고 싶은건
나눔의 아름다움입니다.

Min Kim
회장



오픈뱅크 청지기 프로그램

Open Stewardship Foundation

한인사회와 주변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들의 현 프로그램을 활성화 및 확장하기 위해 [Open Stewardship 재단]에서 드리는 지원금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미주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해 주실 기독교단체 및 비영리 봉사단체들은 지금 바로 오픈뱅크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및 지원금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오픈뱅크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세요.

접수기간: 2012년 12월 31일까지 | 발표일자: 2013년 2월 28일

지원금 수혜자는 오픈뱅크 웹사이트, 신문광고 및 안내우편을 통해 발표됩니다.

www.myopenbank.com



213.892.1197 | 1000 Wilshire Blvd., # 250, Los Angeles, CA 90017



*Open Stewardship 재단이란?

Open Stewardship 재단은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2011년 오픈뱅크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입니다. 동 재단은 매년 오픈뱅크 수익의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오픈뱅크에서는 본 지원금으로 종래의 기금제공 방식으로는 불충분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들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푸엔테힐스 현대

2012년도 마지막 재고 폭탄세일!

몇대 남지 않은 2012년도 모델을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2012 Equus Ultimate (STK #051811)

UP TO \$14,400 D/C

Lease For 629 + Tax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5,999
(Include Military, Comp., College Rebate)

- MSRP 66,650 • MILITARY REBATE 500
- PH HYUDAI D/C 11,000 • COLLEGE REBATE 400
- COMP. REBATE 2,500 • NET PRICE 52,250 *Demo Model



2012 Genesis 4.6 (STK #175330)

UP TO \$10,000 D/C

Lease For 409 + Tax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5,999
(Include Military, College Rebate)

- MSRP 45,535 • MILITARY REBATE 500
- PH HYUDAI D/C 9,100 • COLLEGE REBATE 400
- NET PRICE 35,535



2012 Veracruz Limited (STK #193315)

UP TO \$8,500 D/C

Lease For 219 + Tax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5,999
(Include Military, Comp., College Rebate)

- MSRP 37,275 • HMFC REBATE 1,000
- PH HYUDAI D/C 4,100 • MILITARY REBATE 500
- COMP. REBATE 1,500 • COLLEGE REBATE 400
- HMA REBATE 1,000 • NET PRICE 28,775



Fleet Manager 찰리 정
626.513.4981



Sales 스티브 장
626.513.4006



Sales Manager 저스틴 김
626.513.4580



고객상담 제니 김
626.513.4683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WWW.PHHYUNDAI.COM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